SEOUL MY SOUL
서울마이소울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발간등록번호
51-6113815-000023-10

사업결과보고서

2023년
서울기록화 사업 2023.11.

서울기록원
SEOUL METROPOLITAN ARCHIVES



서울기록원
SEOUL METROPOLITAN ARCHIVES

2023년 서울기록화 사업
사업 결과 보고서

2A COMPANY
A.I Archive

투에이 주식회사

Tel. 02-6959-4907
Fax. 02-6959-4906
two-a@two-a.com

제 출 문

본 보고서를 『2023년 서울기록화 사업』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3년 11월

수 행 기 관	투에이 주식회사
사업책임자	안지현(투에이 주식회사 과장)
참여연구원	김대건(투에이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종욱(투에이 주식회사 대리)
	류지수(투에이 주식회사 대리)
	최태석(투에이 주식회사 과장)
	김지훈(투에이 주식회사 대리)
	홍철민(투에이 주식회사 팀장)
	허영균(투에이 주식회사 팀장)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및 수행 전략 ····· 1
   가. 사업 목적 ····· 1
   나. 수행 전략 ····· 2
2. 사업 수행 방법 ····· 3
3. 사업 수행 주요 내용 ····· 4
   가. 서울기록 수집 ····· 4
   나. 서울의 기록 활동 조사·발굴 및 서울기록화 네트워크 운영 ····· 5
   다. <2023 서울기록페어> 개최 ····· 7
   라. 시민기록 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 ····· 8
4. 조직 및 수행 일정 ····· 9
   가. 조직구성 ····· 9
   나. 수행 일정 ····· 10

Ⅱ. 사업 내용

1. 서울기록 수집 ····· 12
   가. 개요 ····· 12
   나. 서울기록 수집: ‘S-NAP 2.4.5 연극과 무용’ ····· 15
   다. 서사형 아카이브 ····· 22
   라. 다큐멘터리 아카이브 ····· 23
   마. 수집기록물 정리 ····· 26
   바. 시사점 ····· 29
2. 서울의 기록 활동 조사·발굴 및 서울기록화 네트워크 운영 ····· 31
   가. 개요 ····· 31
   나. 네트워크 진행 ····· 32
   다. 네트워크 대상 선정 ····· 32
   라. 네트워크 면담 대상 ····· 37
   마. 네트워크 면담 ····· 38
   바. 기존 네트워크 현황조사 ····· 43
   사.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 ····· 45

3. <2023 서울기록페어> 개최 ····· 49
가. 개요 ····· 49
나. 홍보 ····· 50
다. 서울기록페어 전체 프로그램 ····· 52
라. 기념품 제작 ····· 62
마. <2023 서울기록페어> 성과 ····· 63
4. 시민기록 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 ····· 65
가. 온라인 콘텐츠 제작 ····· 65
나. 아카이빙북 제작 ····· 68

Ⅲ. 결론
1. 『2023년 서울기록화 사업』 성과 ····· 73
2. 향후 서울기록화 추진 방향 ····· 76

표 목 차

<표 1> <2023 서울기록페어> 기획 및 운영방안 ····· 7
<표 2> 주제별·유형별 수집기록물 수량 ····· 14
<표 3> 다큐멘터리 아카이브 개요 ····· 24
<표 4> 수집기록물 색인 항목 ····· 26
<표 5> 수집기록물철 색인 항목 ····· 28
<표 6> 수집기록물건 색인 항목 ····· 29
<표 7> 네트워크 진행 프로세스 ····· 32
<표 8> 네트워크 영역별 특성 ····· 33
<표 9> 1, 2차 네트워크 리드 후보군 목록 ····· 34
<표 10> 최종 네트워크 대상 목록 ····· 37
<표 11> 2차 네트워크 접촉일지 ····· 38
<표 12> 최종 네트워크 면담 주요 내용 ····· 39
<표 13> 서울기록화 네트워크 현황조사 결과 ····· 44
<표 14> <한 편의 희곡이 되는 나의 서울 이야기> 세부 일정 ····· 46
<표 15> <2023 서울기록페어> 홍보물 제작 목록 ····· 51
<표 16> 전체 프로그램 일정표 ····· 52
<표 17> <북큐레이션> 선정 도서 목록 ····· 53
<표 18> 다큐멘터리 상영 목록 ····· 54
<표 19> <렉처 프로그램> 일정표 ····· 57
<표 20> <2023 서울기록페어> 기념품 ····· 62
<표 21> 아카이빙북 목차 ····· 69

그 림 목 차

<그림 1> 사업 조직 구성도 ····· 9
<그림 2> 사업 수행 일정 ····· 10
<그림 3> S-NAP 기반 수집실행 프로세스 ····· 12
<그림 4> 수집실행 프로세스 ····· 14
<그림 5> 리드·케이스파일(성균관대학교 극예술연구회) ····· 16
<그림 6> 기록물 수집실행계획서(성균관대학교 극예술연구회) ····· 16
<그림 7> '젊은 날의 연극' 수집기록물 예시 ····· 17
<그림 8> '서태리' 수집기록물 예시 ····· 18
<그림 9> '중앙대학교 영죽무대' 수집기록물 예시 ····· 18
<그림 10> '세종대학교 세종극회' 수집기록물 예시 ····· 19
<그림 11> '서울대학교 서울미대극예술연구회' 수집기록물 예시 ····· 19
<그림 12> '극단 생존자프로젝트' 수집기록물 예시 ····· 20
<그림 13> '리틀엔젤스예술단' 수집기록물 예시 ····· 20
<그림 14> '성균관대학교 극예술연구회' 수집기록물 예시 ····· 21
<그림 15> '몸소리말조아라' 수집기록물 예시 ····· 21
<그림 16> 서사형 아카이브 ····· 23
<그림 17> '무대를 기록하는 네 가지 방법' 다큐멘터리 장면 ····· 26
<그림 18> 네트워크 구축 프로세스 ····· 31
<그림 19> 이메일을 통한 네트워크 리드 접촉 ····· 38
<그림 20> 서울기록화 네트워크 현황조사 내용(이메일 조사) ····· 44
<그림 21> 네트워크 프로그램 홍보물 사진 ····· 45
<그림 22> 네트워크 프로그램 현장 사진 ····· 47
<그림 23> 수료증 수여식 및 기념품 지급 ····· 47
<그림 24> 희곡 모음집 표지 및 희곡 목록 ····· 48
<그림 25> <2023 서울기록페어> 초대장 이미지 ····· 50
<그림 26> <2023 서울기록페어> 홍보물 사진 ····· 52
<그림 27> <북큐레이션> 운영 사진 ····· 53
<그림 28> <다큐멘터리 아카이브 상영회> 행사 사진 ····· 54
<그림 29> <희곡을 만나는 시간: 오세혁 작가 북토크x희곡 낭독회> 행사 사진 ··· 55
<그림 30> <생활수선> 행사 사진 ····· 56
<그림 31> <기록을 바라보는 여섯 개의 시선> 행사 사진 ····· 57

<그림 32> 김익한: 삶의 무기가 되는 기록법 강연 현장 ····· 58
<그림 33> 김현옥: 함께하는 연극 기록, 의미와 가치에 대한 이야기 강연 현장 ···· 58
<그림 34> 주선영: 공연예술과 아카이브 강연 현장 ····· 59
<그림 35> 홍주아: 면목3.8동의 삶과 기록 강연 현장 ····· 59
<그림 36> 서태리: 안무가의 감각을 간직하기 위해 강연 현장 ····· 60
<그림 37> <가을밤, 기록으로 다시 밝히다> 행사 사진 ····· 61
<그림 38> <우리의 나날을 기록해> 행사 사진 ····· 61
<그림 39> 온라인 콘텐츠 인터뷰 사진 ····· 65
<그림 40> 온라인 콘텐츠 결과 ····· 67
<그림 41> 아카이빙북 표지 및 내용 ····· 71

Ⅰ.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및 수행 전략

2. 사업 수행 방법

3. 사업 수행 주요 내용

4. 조직 및 수행 일정

1 사업 목적 및 수행 전략

가. 사업 목적

1) 서울기록 수집을 통한 서울의 역사와 서울 시민의 삶 기록화

- 기록 수집 정책은 공공기관 행정 기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를 지침으로 삼아 서울을 구성하는 다양한 측면을 반영하여 기록화하기에는 한계점이 뚜렷함
- 이에 2019년 「서울기록 수집 및 기록콘텐츠 개발 사업」에서 서울 서사형 기록화 지침(Seoul-Narrative Archiving Policy, 이하 'S-NAP')을 개발함
- S-NAP은 대표성과 상징성을 지닌 인물, 사건, 장소, 현상 등을 서사와 연결하여 맥락을 드러내고 삶의 구성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다원적이고 총체적 기록화를 통한 서울의 재현을 목적으로 함
- S-NAP의 구조는 인간 삶의 물질적, 정신적, 사회적 영역을 아우르는 핵심 개념들을 중심으로 구성됨
- S-NAP을 구성하는 하위 요소 가운데 수집주제를 선정하고, 해당 수집주제와 관련된 서울기록을 수집함으로써 서울의 역사와 서울 시민의 다양한 삶을 기록화함
- 더불어 인물, 사건, 장소, 현상 등을 보다 총체적으로 기록하기 위하여 다큐멘터리 아카이빙 방법론을 활용하여 물리적 수집의 한계 보완 추진

2) 서울 내 다양한 기록 활동 발굴 및 서울기록화 네트워크 운영

- 서울기록화 네트워크의 형성 대상을 공공영역, 협치영역, 민간영역 등 넓은 범위로 설정하여 폭넓은 서울기록화 네트워크 구축
- 면담 조사 시 서울기록원의 사업 담당자와 동행하여 네트워크 구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기관과 기록활동가 간 라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함
- 기록 활동에 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기록화 네트워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추진

3) 서울 내 기록문화 확산의 장 <서울기록페어> 개최

- 서울기록원을 대표하는 기록문화행사 <서울기록페어> 개최 추진
- 기록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교육·체험 프로그램, 가족 대상 프로그램, 도서 소개 프로그램, 강연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식의 기록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행사 참가를 독려함

- 특히, 서울기록화 수집주제와 연계한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서울기록화 과정을 직접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함

4) 시민기록 콘텐츠 개발·서비스를 통한 서울의 기록문화 확산

- 서울기록화 사업을 통해 발굴된 서울의 기록 활동을 소개하는 콘텐츠 <서울기록원이 만난 서울을 기록하는 사람들> 제작 추진
- 서울의 기록활동가들과의 온라인 콘텐츠 기획 협업을 통해 서울기록원과 기록활동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을 추구함
- 수집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가들과의 인터뷰 형식으로 구성된 아카이빙북 제작
- 실제 인터뷰를 통해 얻은 다양한 서울 이야기를 통해 서울의 다채로운 역사와 서울 시민의 삶을 생동감 있게 기록화함
- 수집이 어려운 무형의 경험과 기억을 아카이빙북 형태로 콘텐츠화함으로써 사라지기 쉬운 서울 내 문화를 영구히 기록화하여 문화적 유산의 보전에 기여함

나. 수행전략

1) S-NAP 기반의 수집 활동과 네트워크 운영의 유기적 연계

- S-NAP 기반의 수집전략, 서울기록 수집 활동, 기록 주체 간 네트워킹이라는 사업 수행과정이 서로 끊임없이 상호 작용할 수 있는 구조 생성
- 수집실행 전략
  - S-NAP을 기반으로 하는 수집 활동 중 접촉한 기록 보유자의 정보를 네트워크 팀에 전달하여 네트워크 구축에 반영
- 네트워크 운영 전략
  -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기록 수집 가능성을 기록물 수집정리팀에 전달
  - 네트워크 운영의 결과가 <서울기록페어>에서 발현될 수 있도록 유도

2) 사업의 특성에 따른 전문가 조직 구성

- 다큐멘터리 제작, 아카이빙북 및 네트워크 운영 시 영상 제작 전문가, 출판 및 공연예술 전문가 조직으로 구성
- 다양한 유형의 기록관리 사업을 경험한 전문 인력 투입

2 사업 수행 방법

1) S-NAP을 기반으로 한 서울기록 수집 활동 전개

- 2019년 「서울기록 수집 및 기록콘텐츠 개발 사업」에서 개발된 S-NAP은 현실 세계에 대한 문화적 표상으로서의 상징체계를 수집 전략과 기록 방법론에 구현한 지침임
- 이는 선별적인 수집을 위한 가치 판단에 있어서 기능과 계층적 분류에 기반했던 전통적인 관점을 넘어서 다원적이고 다층적인 수집 전략을 적용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형성한 것으로 평가됨
- 2019년 개발 이후 S-NAP은 2020~22년 「서울기록화 사업」에서 수집 활동의 원칙과 지침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활용되고 있음

2)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일관된 전략 수립 및 실행

- 서울기록화 사업은 서울의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기록화하여 도시의 총체적인 역사와 다양성을 영구히 보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따라서 서울기록 수집이 본 사업의 핵심 과업에 위치하며 이를 위해 '연극과 무용'이 2023년 사업의 수집주제로 선정됨
- '연극과 무용'이라는 특정 주제가 기록 수집 과업뿐만 아니라 서울기록화 네트워크 운영, <서울기록페어> 개최, 시민기록 콘텐츠 제작 등 본 사업의 모든 활동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사업이 구성됨
- 이로써 사업의 전체 과업이 통일된 전략과 목표를 공유하게 되어 각 활동이 상호보완적으로 일관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음

3) 과업의 특성에 따른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 수행 조직 구성

- 각 분야의 전문가 그룹은 자체적인 전략적 방법론을 개발하고 실제 과업 수행에 적용함으로써 해당 과업의 특성에 최적화된 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자체적인 특화된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사업의 품질과 완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
- 아울러 분야별 전문가들 간의 협업을 통해 기록 수집과 네트워크 운영을 하나로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등 각 분야의 특수한 사항을 고려하면서도 전체적인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3 사업 수행 주요 내용

가. 서울기록 수집

1) 수집

- S-NAP에 기반하여 서울을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기록화 수행
  - S-NAP에 기반하여 수집주제를 선정하고 수집 활동 진행
  - 원본수집, 사본수집, 생산수집, 네트워크 수집 등 효과적인 수집을 위한 다양한 방법 적용
  - 수집 활동의 과정과 산출물을 절차에 따라 수행·생산하여 다른 과업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효과적인 수집 활동 전개
- 올해 수집주제는 '연극과 무용'으로 선정
  - '연극과 무용'은 특정 시대와 지역에서 발전한 문화적 현상이며, 과거 작품들은 그 시대의 사회, 정치, 문화적 배경 반영. 즉, 동시대성을 지닌 '연극과 무용'은 서울의 모습을 아카이빙 할 수 있는 주요 수집주제
- 올해 사업에서는 총 9개의 수집 리드에서 기록물 총 902점 수집
  - 극단 생존자프로젝트: 235점(전자기록물)
  - 젊은 날의 연극: 16점(전자기록물, 비전자기록물)
  - 세종대학교 세종극회: 38점(전자기록물, 비전자기록물)
  - 중앙대학교 영죽무대: 2점(전자기록물)
  - 성균관대학교 극예술연구회: 237점(전자기록물, 비전자기록물)
  - 서울대학교 서울미대극예술연구회: 67점(전자기록물, 비전자기록물)
  - 리틀엔젤스예술단: 70점(전자기록물)
  - 몸소리말조아라: 159점(전자기록물)
  - 서태리: 78점(전자기록물)
- 수집기록은 수집 당시의 원질서를 존중하되 보존·관리에 적합하도록 활동 맥락도 고려
  - 비전자기록물(218점)은 대여 후 디지털화 진행
- 정리한 수집기록을 출처, 서사 키워드, 원본파일명, 생산일, 수집유형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검색·접근이 가능하도록 목록화

2) 다큐멘터리 아카이브

- 올해 수집주제를 바탕으로 다큐멘터리를 기획·촬영하여 기록물 수집의 한계를 영상기록으로 보완

- 기록학 전문가와 다큐멘터리 전문가의 협업을 통해 기록학적 원칙을 준수하면서 다큐멘터리의 장점을 접목하여 기록 수집의 한계를 보완하는 영상 기록을 생산·수집
  - 수집팀과 다큐멘터리 전문가는 수집주제 선정, 수집 리드 발굴, 현지 조사, 기록 수집, 다큐멘터리 촬영 등의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여 수집기록과 다큐멘터리의 상호보완적인 역할 구축
- 수집 리드 중 일부 리드를 선정하여 다큐멘터리 아카이빙을 실행함으로써 보다 입체적이고 다층적인 기록화 실행
  - 극단 생존자프로젝트
  - 성균관대학교 극예술연구회
  - 몸소리말조아라
  - 서태리 무용안무가

3) 정리·등록

- 올해 사업에서는 「2022년 서울기록화 사업」 수집기록물을 대상으로 서울디지털아카이브(SDA) 시스템(이하, 'SDA 시스템')에 시범 등록하여 향후 대시민 서비스 기반 마련
  - 서울기록원 디지털화 지침을 준용하여 보존용 포맷과 열람용(서비스용) 포맷으로 변환 후 SDA 시스템 시범 등록 진행

나. 서울의 기록 활동 조사·발굴 및 서울기록화 네트워크 운영

1) 서울의 기록 활동 현황 조사 및 발굴

- 서울기록 수집주제와 연계된 서울의 공공·협치·민간단체(개인)의 기록 활동을 조사·발굴하여 서울 내 기록 활동 현황 파악 및 서울기록원을 중심으로 하는 서울기록화 네트워크 구축
- 서울기록원이 서울기록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대상 기관과의 관계 맺기에 초점을 맞추어 네트워크 운영
- 기록 활동 조사 후 영역별 면담 대상을 선정하여 면담을 진행하고 면담일지 작성 후 서울기록화 네트워크 목록 최신화
  - 1차 후보군: 120개
  - 2차 후보군: 40개
  - 최종 후보군: 20개
- 올해 사업에서는 2018~22년 서울기록화 네트워크의 기록 활동 유지 여부에 중점을 두고 현황 조사 실행

- 서울기록화 네트워크: 187개
- 온라인 조사와 이메일 및 유선 조사 진행

2) 면담 조사

- 기록 활동 사전 조사 후 면담 조사 대상을 선별하여 실제 면담 조사 실행
  - (재)국립극단, 서울연극센터, 극단 생존자프로젝트 등 총 20곳 면담 조사 완료
- 면담 조사를 통해 면담 대상의 기록 활동 현황을 우선 중점적으로 조사한 후 서울기록 수집을 위해 수집주제인 '연극과 무용' 관련 기록물 수집 가능 여부를 추가적으로 파악하는 순서로 진행
- 면담 조사 완료 후 면담 조사 일지를 작성하여 조사 내용을 명확하게 문서화함으로써 후속 분석 및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차후 서울기록화 네트워크 운영에 대한 전략 수집 및 발전을 위한 기반 자료로 면담 조사 일지가 활용될 수 있게 함

3) 서울기록화 네트워크 프로그램

- 서울시민들이 기록문화에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수집주제인 '연극과 무용'을 연계한 서울기록화 네트워크 프로그램 기획·운영
  -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편의 희곡이 되는 나의 서울 이야기> 프로그램 진행 (4주간, 총 4회 운영)
  - 참여자들이 직접 단막 희곡을 작성할 수 있도록 전문 극작가를 섭외하여 희곡의 기초 및 실제 작성법 등을 안내하게 하고, 참여자들이 완성한 희곡 작품을 연극 배우들을 초청하여 낭독하게 하는 '희곡 낭독회'를 개최하여 서울 시민들이 기록문화를 더욱 흥미롭게 체험할 수 있는 계기 마련

다. <2023 서울기록페어> 개최

- 서울의 기록문화 확산을 위해 발굴된 '서울기록화 네트워크'를 포함하여 다양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기획·운영
  - <2023 서울기록페어>는 서울기록화 네트워크와 시민 그리고 가족 단위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서울 내 기록문화 확산 도모
- <2023 서울기록페어>는 총 6일간 일차별로 총 8개의 프로그램 기획

구분	내용
행사명	- <2023 서울기록페어: 기록이 모이면 서울이 됩니다>
기획의도	- 기록문화 행사 개최를 통한 서울기록 생태계 구축 - 서울기록화 네트워크의 기록 활동 소개 및 상호교류 -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의 기록문화 확산 - 서울의 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서울기록원 위상 강화
개최일정	- 2023년 10월 24일(화) ~ 29일(일)
개최장소	- 서울기록원(전 프로그램 오프라인 진행)
참여대상	- 서울시민 - 서울기록 네트워크 - 기록 분야 종사자 및 유관 분야 종사자
프로그램	- <북큐레이션> - <다큐멘터리 아카이브 상영회> - <희곡을 만나는 시간: 오세혁 극작가 북토크x희곡 낭독회> - <생활수선> - <기록을 바라보는 여섯 개의 시선: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가는가> - <렉처 프로그램> - <가을밤, 기록으로 다시 밝히다> - <우리의 나날을 기록해: 우리 가족 타임캡슐>

<표 1> <2023 서울기록페어> 기획 및 운영방안

- <2023 서울기록페어> 프로그램별 참여자 수 집계(총 136명 참여)
  - <희곡을 만나는 시간: 오세혁 극작가 북토크x희곡 낭독회>: 9명
  - <생활수선>: 6명
  - <기록을 바라보는 여섯 개의 시선: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가는가>: 32명
  - <렉처 프로그램>: 60명
  - <가을밤, 기록으로 다시 밝히다>: 13명
  - <우리의 나날을 기록해: 우리 가족 타임캡슐>: 16명

라. 시민기록 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

1) 온라인 콘텐츠 제작

- 2020년부터 추진되어 온 「서울기록화 사업」을 통해 발굴된 서울의 기록활동을 소개하는 <서울기록원이 만난 서울을 기록하는 사람들> 온라인 콘텐츠 제작
- 자생적으로 활동하는 서울 내 기록활동가들에게 활동 공유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기록 활동을 지원하는 공공아카이브로서 서울기록원의 역할 수행
- 서울의 기록활동가들과의 온라인 콘텐츠 기획 협업을 통해 서울기록원-기록활동가 간의 네트워크 강화
- 시민들의 기록 활동 참여 의지를 고취하여 서울 내 기록문화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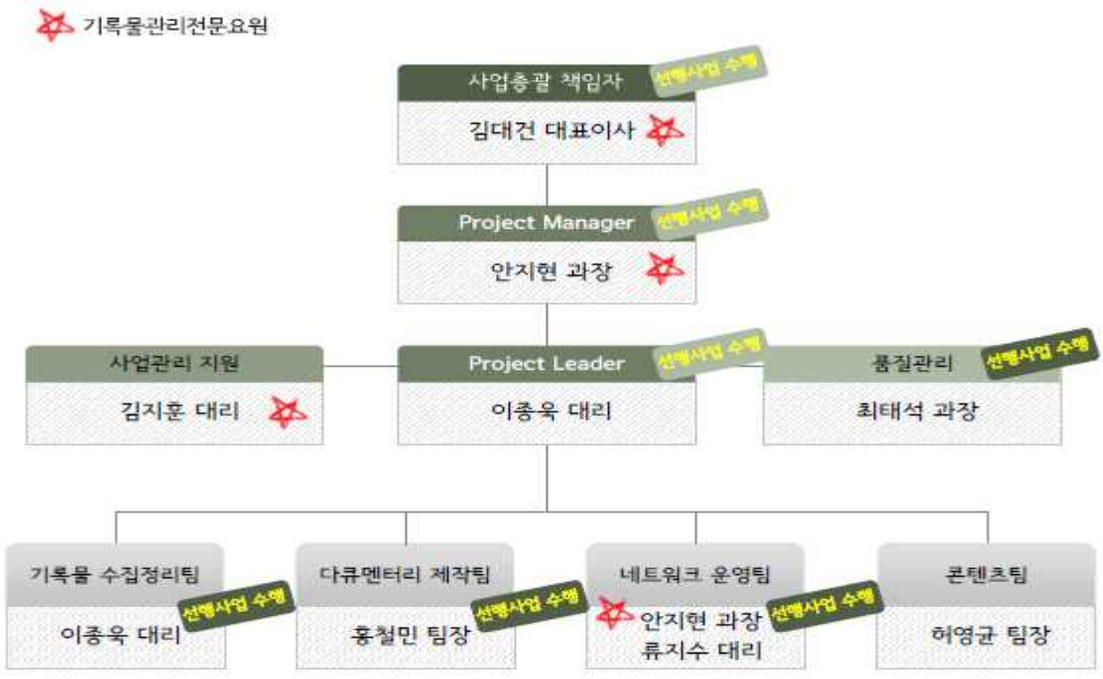
2) 아카이빙북 제작

- 아카이빙북 제작 목적
  - 기록도시 서울의 시민들이 가진 일상과 경험, 이야기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이 목적
  - 시민 참여와 협력의 거버넌스를 모색하는 서울기록원의 지향을 시민과 공유하고 향후 시민기록 활동 교류 및 기록생태계 구축 과정에서 소통의 도구로 활용
- <2023 아카이빙북>의 주요 콘텐츠는 올해 수집주제 '연극과 무용'에 따라, '서울'이 배경과 소재가 되거나, 서울이라는 장소성과 역사성을 배경으로 집필·창작·공연된 '연극과 무용' 작품을 만든 창작자와 서울의 '연극과 무용'에 있어 중요한 거점 공간 및 거점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기록
- '연극과 무용'에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서울의 기관과 단체들을 면담하고 기록
- 올해 사업의 서울기록화 네트워크 프로그램 <한 편의 희곡이 되는 나의 서울 이야기>와 <2023 서울기록페어>를 현장 스케치를 통해 기록

4 조직 및 수행 일정

가. 조직구성

1) 조직 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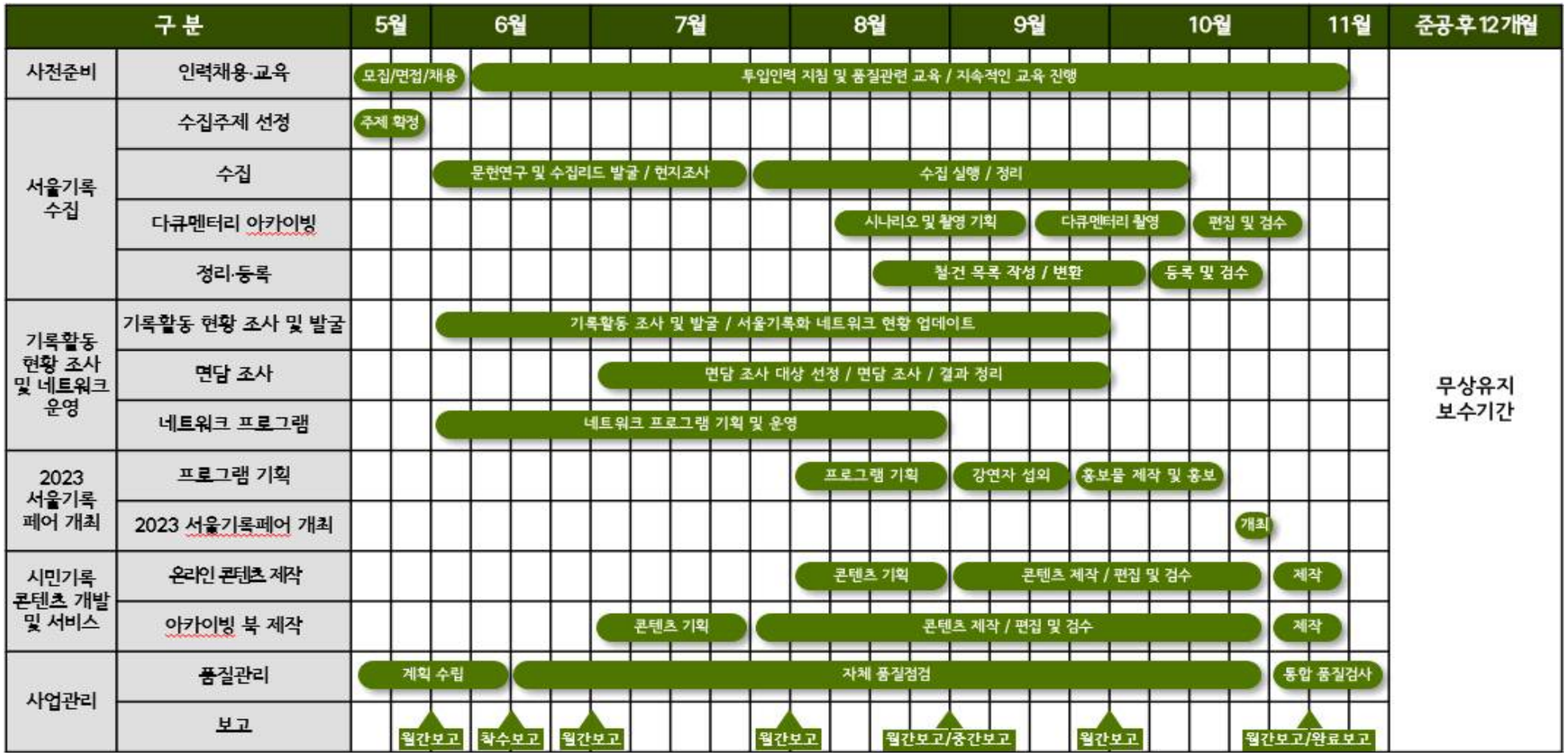


<그림 1> 사업 조직 구성도

2) 조직 운영의 특징

- 기록물 수집정리팀과 다큐멘터리 제작팀을 동시에 운영하여 수집정리 활동과 다큐멘터리 제작의 연계를 강화
- 기록물 수집정리팀과 네트워크 운영팀의 상호보완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직 운영
  - 네트워크 운영팀의 기록 활동 조사 및 발굴 활동의 과정과 결과를 공유하여 기록물 수집정리팀과 상호 연계 강화
- 수집의 과정과 결과를 통해 정리·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조직 운영
- <2023 서울기록페어>를 개최하여 서울기록화 네트워크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구성
- 콘텐츠팀 인원이 기록물 수집 활동 및 네트워크 운영에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조직 운영

나. 수행 일정



<그림 2> 사업 수행 일정

- 기록물 수집과 네트워크 조사·발굴을 진행하는 데 상호보완이 이루어지도록 일정 구축

Ⅱ. 사업 내용

1. 서울기록 수집

2. 서울의 기록활동 조사·발굴 및 서울기록화 네트워크 운영

3. <2023 서울기록페어> 개최

4. 시민기록 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

1 서울기록 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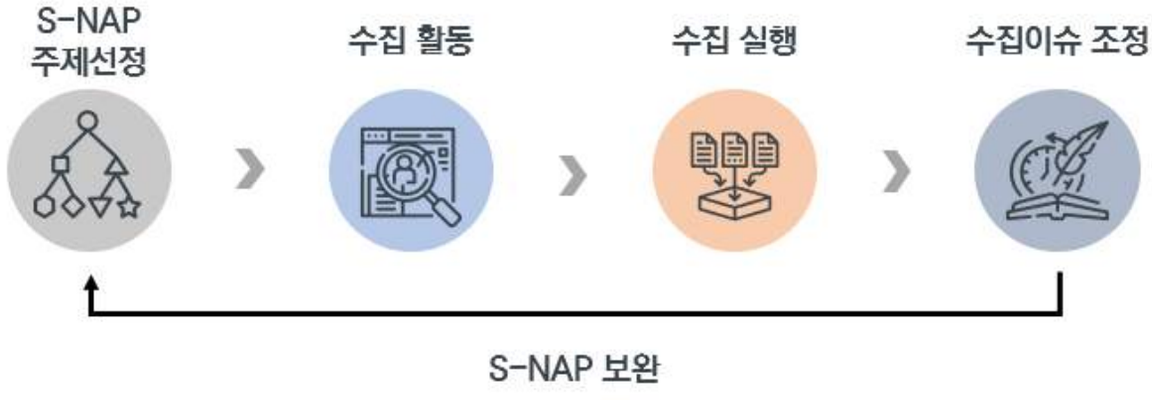
가. 개요

1) 서울 서사형 기록화 지침(S-NAP)의 목적 및 특징

- 2019년 「서울기록 수집 및 기록콘텐츠 개발 사업」을 통해 서울을 둘러싼 사회적 기억과 서울 시민의 일상적 삶의 특징을 기록화하기 위한 서사 기반의 수집실행지침으로 S-NAP이 개발됨
- S-NAP은 서울을 움직이는 주체인 서울 시민의 삶과 문화적 경험을 역사적이고 동시대적으로 기록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지침으로, 서울 시민의 삶이 모여 서울을 구성하고 있다는 관점을 기반으로 서울기록 수집의 방향성을 제시함
- S-NAP을 활용함으로써 대표성과 상징성을 지닌 인물, 사건, 장소, 현상 등을 서사와 연결해 맥락을 드러내고 삶의 구성적인 측면을 강조하며 다원적이고 총체적 기록화를 통해 서울을 재현할 수 있음
- S-NAP은 서울기록화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서울기록의 식별 및 보완 그리고 수집의 도구로 활용 가능

2) S-NAP 기반 수집 활동

- ‘S-NAP 기반 주제 선정’ > ‘수집 활동’ > ‘수집 실행’ > ‘수집이슈 조정을 통한 S-NAP 보완’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수집 체계 구축
- 수집을 실제 실행하며 수집 기록을 아우르는 서사가 수정될 수 있으며 수집 과정의 결과를 통해 S-NAP 보완 및 수정 가능



<그림 3> S-NAP 기반 수집실행 프로세스

3) 수집주제 선정

- 2023년 서울기록 수집주제로 'S-NAP 2.4.5 연극과 무용'을 선정함
- '연극과 무용'은 특정 시대와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반영하는 예술 장르이며, 개별 작품에는 그 시대의 사회, 정치, 문화적 배경이 녹아들어 있음
- 동시대의 사회적 상황, 예술적 지향 그리고 사상적 경향이 담긴 작품은 그 사회를 증언하는 사료로서 당대의 예술적 성취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문화적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문화유산임
- 특히 서울 내 많은 지역이 개발 및 도시화 등으로 지역의 특성과 문화를 상실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시대 연극과 무용 등 예술 현장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됨
- 서울의 거리와 건축물, 풍경을 묘사하는 작품들은 쉴 틈 없이 변화하는 서울의 모습을 담은 흔적으로, 연극과 무용의 기록을 통해 서울 각 지역의 지리적, 문화적 특성 등이 보존될 수 있음
- 따라서 서울을 배경으로 하는 연극 및 무용 작품은 서울의 변천사를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 증거로서 기록 수집의 중요성이 매우 높음
- 또한, 공연예술은 공연이 끝나면 사라지는 일회성 예술이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관련 기록을 수집, 보존해야 할 필요성이 높음

4) 수집 방향

- 공연예술과 관련된 다양한 기록 수집 추진
  - 단순히 서울이 배경이나 소재가 되는 작품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수집 및 보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울이라는 특별한 장소성과 역사성을 배경으로 기록을 생산하고 보존하는 개인과 단체를 만나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이 각자 무대를 기록하는 이유와 방법을 담는 것을 목표로 설정함
  - 기획, 연출, 실연(實演), 관람평까지 포괄하는 다각적인 기록물 수집을 통한 서울 내 공연예술 생태계의 체계적인 기록화 추진

5) 수집 리드 선정

- 무대 위의 서울: S-NAP 2.4.5 연극과 무용
  - S-NAP 분석을 통해 수집 예상 리드를 조사하고 실제 현지 조사를 통해 기록물 보유 현황 파악 및 기록물 수집 가능성 판단 등을 거쳐 수집 리드 후보군을 설정한 후, 개별 리드와의 실제 협의를 거쳐 최종 수집 리드를 선정함
  - 최종적으로 수집 리드 총 9개를 대상으로 수집을 진행함

6) 수집 결과

- 수집 결과 총 9개 리드에서 902점의 기록물을 수집함
  - 902점의 수집 기록물을 주제별로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연극 관련 기록물은 595점, 무용 관련 기록물은 307점에 해당함
  - 기록물의 유형으로 살펴보았을 때 사진그림류가 541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일반문서류가 321점, 영상음성류가 40점 수집됨

주제	수집기록물 수량
연극	595점
무용	307점
합계	902점

유형	수집기록물 수량
일반문서류	321점
사진그림류	541점
영상음성류	40점
합계	902점

<표 2> 주제별·유형별 수집기록물 수량

7) 서사 중심 수집 결과 정리

- S-NAP의 기본 서사를 바탕으로 실제 수집을 실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조정 혹은 수정 사항을 반영한 새로운 서사를 형성하고, 이를 문서 형태의 '서사형 아카이브', 영상 형태의 '다큐멘터리 아카이브'로 종합하여 정리함



<그림 4> 수집실행 프로세스

나. 서울기록 수집: ‘S-NAP 2.4.5 연극과 무용’

1) S-NAP 기반 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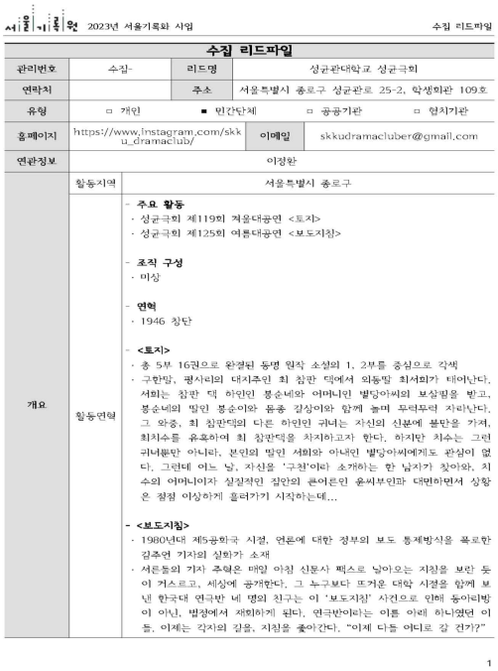
- 서울 시민의 일상 영역을 포괄할 수 있도록 S-NAP의 시선을 따라 수집 진행
- S-NAP을 기반으로 한 수집은 행정적 관점에서 벗어나 동시대 시민의 삶과 역사를 기록으로 발견하고자 하는 시도임

2) ‘S-NAP 2.4.5 연극과 무용’ 수집 계획

- S-NAP의 기본 서사 지향을 고려한 수집 계획 설정
  - 연극과 무용은 동시대의 사회적 상황, 예술적 지향, 사상적 경향을 반영하고 있어 서울의 모습 변화를 재구성하고 서울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감정과 흐름을 조망하기에 적합한 주제임
  - 연극과 무용 등 공연예술은 문화적 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휘발성이 강하여 후대에 보전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록화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장르임
  - S-NAP의 서사는 서울이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하는 공연예술 작품, 혹은 개별 작품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서울 시민들의 감정과 생각의 흐름을 강조함
  - 이러한 S-NAP의 기본 서사 지향을 기반으로 서울을 배경으로 작품을 만드는 시민들의 활동 모습과 그들이 연극과 무용을 통해 서울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수집하는 데 중점을 둠
  - 따라서 서울을 배경으로 한 연극과 무용 작품을 우선적으로 조사하여 관련성이 높은 수집 리드 후보군을 발굴하고, 더 나아가 공연예술 작품의 기획, 제작, 실연, 관람객평 등을 포괄하는 기록물 수집을 위한 계획을 마련함
  - S-NAP 분석을 통해 리드를 조사하고 현지 조사를 통해 수집 실현 가능성과 기록물 소장 현황 등을 조사하여 리드 후보 설정
  - 최종 후보군으로 ‘(사)한국춤문화자료원’, ‘아르코예술기록원’, ‘서울연극센터’, ‘극단 생존자프로젝트’, ‘서태리’ 등 20곳 선정
  - 현지 조사 결과 S-NAP의 지향점과의 부합 여부 및 보유 기록물의 성격과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 수집 리드로 총 9곳을 확정함
- 리드·케이스 파일 등 작성을 통한 수집 리드 관리
  - 기록물 수집정리팀은 수집 리드의 세부조사 과정 및 면담 조사 과정을 ‘리드·케이스 파일’과 ‘면담 일지’ 형태로 작성함
  - 리드 파일 작성을 통해 각 리드와 연관된 다양한 세부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관리하고자 하였음
  - 케이스 파일과 면담 일지를 작성하여 면담 과정에서의 대화를 정리하고 문서화하였으며, 면담 과정에서 발생한 특이사항이나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부분 등을

정리하여 추후 실제 수집 계획 수립 및 추진 단계에서 활용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수집 활동을 진행함

- 이후 '기록물 수집실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집 계획 및 실제 과정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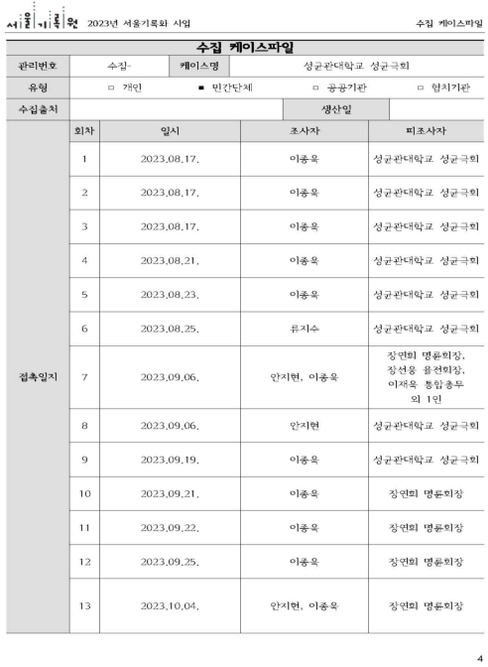


서울기록원 2023년 서울기록화 사업 수집 리드파일

수집 리드파일

관리번호	수집-	리드명	성균관대학교 성균극회		
연락처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학생회관 109호		
유형	□ 개인	■ 민간단체	□ 공공기관	□ 협치기관	
홈페이지	https://www.instagram.com/skku_dramaclub/	이메일	skkudramacluber@gmail.com		
연관정보	이정환				
개요	활동지역	서울특별시 종로구			
	활동연혁	- 주요 활동 · 성균극회 제119회 정기대공연 <토지> · 성균극회 제125회 여름대공연 <보도지침> - 조직 구성 · 미상 - 연혁 · 1946 창단 - <토지> · 총 5부 16권으로 완결된 동명 원작 소설의 1, 2부를 중심으로 각색 · 구한말, 평사리의 대지주인 최 참판 댁에서 외동딸 최서희가 태어난다. 서희는 참판 댁 하인인 봉순네와 어머니인 별당아씨의 보살핌을 받고, 봉순네의 딸인 봉순이와 몸종 갑상이와 함께 놀며 무럭무럭 자라난다. 그 와중, 최 참판댁의 다른 하인인 귀녀는 자신의 신분에 불만을 가져, 최치수를 유혹하여 최 참판댁을 차지하고자 한다. 하지만 치수는 그런 귀녀뿐만 아니라, 본인의 말인 서희와 아내인 별당아씨에게도 관심이 없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을 '구천'이라 소개하는 한 남자가 찾아와, 치수의 어머니이자 실질적인 집안의 큰어른인 윤씨부인과 대면하면서 상황은 점점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하는데... - <보도지침> · 1980년대 제5공화국 시절, 언론에 대한 정부의 보도 통제방식을 폭로한 김추연 기자의 실화가 소재 · 세븐틴의 기자 추락은 매일 이침 신문사 찍으로 날아오는 지침을 보란 듯이 커스로고, 세상에 공개한다. 그 누구보다 뜨거운 대학 시절을 함께 보낸 한국대 연극반 네 명의 친구는 이 '보도지침' 사건으로 인해 동아리방이 아닌, 법정에서 재회하게 된다. 연극반이라는 이름 아래 하니였던 이들, 이제는 각자의 길을, 지침을 찢어간다. "이제 다들 어디로 갈 건가?"			

1



서울기록원 2023년 서울기록화 사업 수집 케이스파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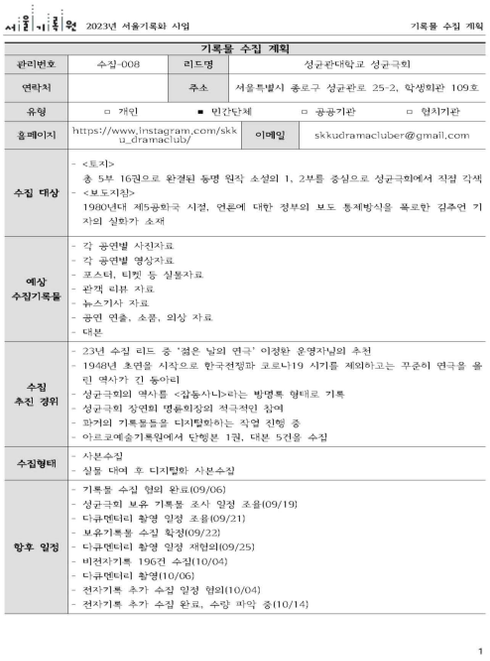
수집 케이스파일

관리번호	수집-	케이스명	성균관대학교 성균극회	
유형	□ 개인	■ 민간단체	□ 공공기관	□ 협치기관
수집출처		생산일		

	회차	일시	조사자	피조사자
접촉일지	1	2023.08.17.	이종욱	성균관대학교 성균극회
	2	2023.08.17.	이종욱	성균관대학교 성균극회
	3	2023.08.17.	이종욱	성균관대학교 성균극회
	4	2023.08.21.	이종욱	성균관대학교 성균극회
	5	2023.08.23.	이종욱	성균관대학교 성균극회
	6	2023.08.25.	류지수	성균관대학교 성균극회
	7	2023.09.06.	안지현, 이종욱	장연희 명륜회장, 장선웅 음련회장, 이재욱 통합총무 외 1인
	8	2023.09.06.	안지현	성균관대학교 성균극회
	9	2023.09.19.	이종욱	성균관대학교 성균극회
	10	2023.09.21.	이종욱	장연희 명륜회장
	11	2023.09.22.	이종욱	장연희 명륜회장
	12	2023.09.25.	이종욱	장연희 명륜회장
	13	2023.10.04.	안지현, 이종욱	장연희 명륜회장

4

<그림 5> 리드·케이스파일(성균관대학교 극예술연구회)



서울기록원 2023년 서울기록화 사업 기록물 수집 계획

기록물 수집 계획

관리번호	수집-008	리드명	성균관대학교 성균극회		
연락처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학생회관 109호		
유형	□ 개인	■ 민간단체	□ 공공기관	□ 협치기관	
홈페이지	https://www.instagram.com/skku_dramaclub/	이메일	skkudramacluber@gmail.com		
수집 대상	- <토지> 총 5부 16권으로 완결된 동명 원작 소설의 1, 2부를 중심으로 성균극회에서 작절 각색 - <보도지침> 1980년대 제5공화국 시절, 언론에 대한 정부의 보도 통제방식을 폭로한 김추연 기자의 실화가 소재				
예상 수집기록물	- 각 공연별 사진자료 - 각 공연별 영상자료 - 포스터, 티켓 등 실물자료 - 관객 리뷰 자료 - 뉴스기사 자료 - 공연 연출, 소품, 의상 자료 - 대본				
수집 추진 경위	- 23년 수집 리드 중 '젊은 날의 연극' 이정환 운영자님의 추천 - 1948년 초연을 시작으로 한국전쟁과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연극을 올린 역사가 긴 동아리 - 성균극회의 역사를 <잡동사니>라는 방명록 형태로 기록 - 성균극회 장연희 명륜회장의 적극적인 참여 - 과거의 기록물들을 디지털화하는 작업 진행 중 - 아르코예술기록원에서 단행본 1권, 대본 5건을 수집				
수집형태	- 사본수집 - 실물 대여 후 디지털화 사본수집				
향후 일정	- 기록물 수집 협의 완료(09/06) - 성균극회 보유 기록물 조사 일정 조율(09/19) - 다큐멘터리 촬영 일정 조율(09/21) - 보유기록물 수집 확정(09/22) - 다큐멘터리 촬영 일정 재협의(09/25) - 비전자기록 196건 수집(10/04) - 다큐멘터리 촬영(10/06) - 전자기록 추가 수집 일정 협의(10/04) - 전자기록 추가 수집 완료, 수량 파악 중(10/14)				

1



서울기록원 2023년 서울기록화 사업 기록물 수집 계획

	- 수집 확정 후 공동이용확인서 작성(10/30) - 대여 기록물 반납(11/08)

2

<그림 6> 기록물 수집실행계획서(성균관대학교 극예술연구회)

3) ‘S-NAP 2.4.5 연극과 무용’ 주요 수집 내용

S-NAP 2.4.5 연극과 무용

예술문화 중 ‘연극과 무용’의 주제영역에서 민간영역의 활동을 중심으로 접촉 진행. 중랑구 면목동을 배경으로 극을 만들면서 기록과 연극을 접목하려고 시도하는 ‘극단 생존자프로젝트’, 마찬가지로 마포구 신수동을 배경으로 인터뷰를 통해 다원 예술 작품을 창작·공연하고 작품별로 기록을 남기고 있는 ‘몸소리말조아라’, 대학교 연극 동아리를 통해 공연예술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세종대학교 세종극회’, ‘중앙대학교 영죽무대’, ‘성균관대학교 극예술연구회’, ‘서울대학교 서울미대극예술연구회’, 외부에 쉽게 알려지지 않은 대학교 연극 동아리의 활동을 알리고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블로그 ‘젊은 날의 연극’, 서울의 대표 어린이 무용단인 ‘리틀엔젤스예술단’, 기록으로 남기기 어려운 무용 분야에서 무보체계를 만들어 기록으로 남기려고 시도하고 있는 안무가 ‘서태리’ 등이 서울의 모습을 작품과 공연 그리고 그 자체의 기록을 남기려 한다고 판단되어 수집 리드로 확정 후 기록물 수집 진행

(주요서사) 서울 공연예술계에서 다양한 형태로 시도하는 기록에 관한 이야기. 서울을 배경으로 한 연극을 기록으로 남기는 이야기. 이들의 활동 모습을 제3자의 입장에서 남기는 이야기. 기록으로 남기기 어려운 무용 분야에서 새로운 기록체계를 만들어가는 이야기.

- 젊은 날의 연극, 2023년 8월 22일 수집(16점)
  - 서울권 대학 연극 동아리들의 연극 홍보물, 관람 후기 수집
  - 젊은 날의 연극 블로그 운영자 본인이 느낀 감상평 수집
  - 비전자기록물 디지털화(스캔: 4점) 후 수집



<서편제>

세종대학교 세종극회 82회 정기공연
세종대학교 학생회관 만남소극장
원작 : 이청준
기획 : 고은
연출 : 김다인

2022년 9월 23일

9월이 시작될 때부터 거의 쉬지 않고 다닌 학공 투어 때문에 몸이 지칠대로 지쳐있었고 그래서 9월 말에 예정되어 있는 공연들을 보러가지 말까 고민했었다. 세종극회의 이 <서편제> 공연도 보러갈까말까 고심하던 시기가 있었다. 가지 말까 생각하다가 <서편제>라는 작품을 편히 고르지 않았을 것 같아서 결국 보러 가기로 했다.

<서편제>의 원작 소설이나 영화를 본 적은 없다. 하지만 영화판이 워낙 유명했기에 자라면서 이 <서편제>가 어떤 내용과 주제를 담고 있는지 대충은 알고 있었다. 판소리와 한(恨)의 정서를 담은 작품을 과연 연극 동아리 공연에서 얼마나 표현할 수 있을지 반신반의하면서 갔다.

훌륭한 공연은 작은 부분에서도 그 티가 난다. 하우스 조명. 극장이 열리고 관객이 입장하여 객석에 앉아 대기하고 있을 때 무대와 객석을 비추는 조명. 어찌보면 공연과 큰 관계 없어보여서 별로 신경을 안 쓸 수도 있다. 실제로 많은 학공들이 하우스 조명을 신경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객석 조명이 충분치 않아서 관객들이 어둠 속에서 자리를 찾기도 하고, 무대는 그냥 별 특별한 조명 없이 그냥 어둡거나 단조롭기도 하다. 이 공연에서는 객석 조명이 완전히 빛지는 일아서 관객들이 좌석 번호를 찾는 것이 약간 어렵긴 했으나, 무대 조명은 훌륭했다. 무대가 한 눈에 들어오도록 밝고 색깔 조명까지 활용함으로써 단조롭거나 심심한 느낌도 없었다. 이 하우스 조명 하나만 보더라도 공연팀이 얼마나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썼는지 보였으며, 공연에 대한 기대가 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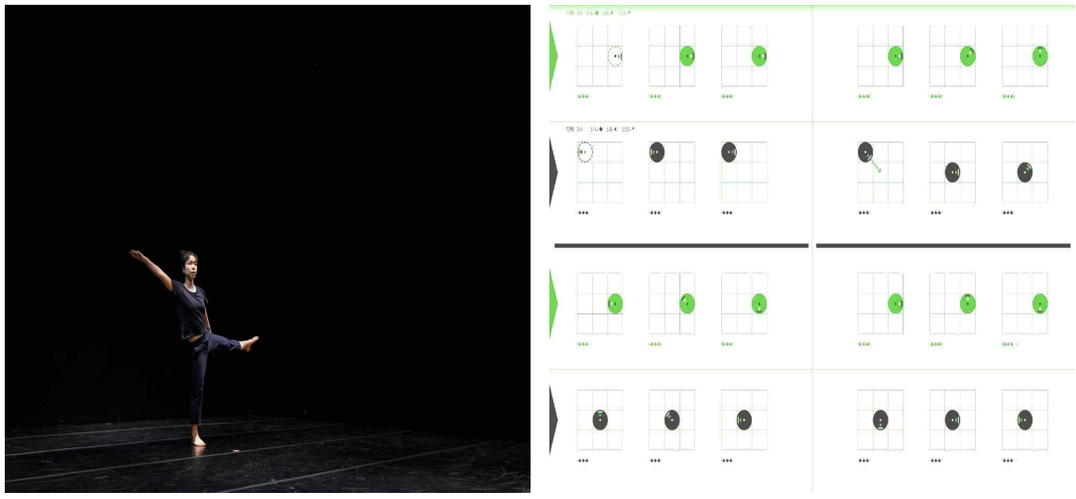
하우스 음악으로는 십수년 전 방영되었던 드라마 <궁>의 OST가 나오던데... 듣고 있을 때는 별다른 생각이 들지 않았지만, 극을 다 보고나서는 극 내용에 비해 너무 세련되고 너무 정갈 없이 구성된 음악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싶었다. 그리고 곡 자체의 길이가 짧았어서 편집을 통해 듣럼노래처럼 반복되게끔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었다.

연극이든 뮤지컬이든 영화든 이야기를 담은 작품은 '오프닝'이 아주 중요할 수밖에 없다. 관객들에게 이 이야기가 어떤 분위기를 담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될 건지를 보여주는 시간이다. 그리고 공연을 재밌게 감상하고 싶은 마음이 최대치에 있는 관객들을 확 몰입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기도 하다. 이 공연에서는 떠들썩한 시장 장면이 오프닝이었다. 배우들이 각자 동작과 대사를 주고 받으며 따로, 또 같이 무대를 움직이며 개개인과 전체의

<그림 7> ‘젊은 날의 연극’ 수집기록물 예시

○ 서태리, 2023년 9월 21일 수집(78점)

- <하나의 몸으로 2인무 안무하기>, <하나의 몸으로 2인무 기록하기>, <2인무를 벗어나는 하나의 몸> 공연 실황 영상 수집
- <하나의 몸으로 2인무 안무하기>, <하나의 몸으로 2인무 기록하기> 홍보물 수집
- 안무 무보 수집



<그림 8> '서태리' 수집기록물 예시

○ 중앙대학교 영죽무대, 2023년 9월 22일 수집(2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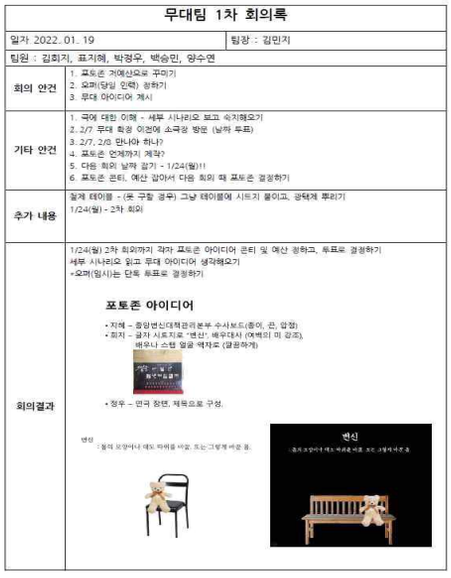
- 제90회 정기공연 <뒤풀이> 포스터 수집



<그림 9> '중앙대학교 영죽무대' 수집기록물 예시

○ 세종대학교 세종극회, 2023년 10월 5일 수집(38점)
- 정기공연 홍보물 수집
- 정기공연 준비과정에서의 회의록 수집
- 비전자기록물 디지털화(스캔: 2점) 후 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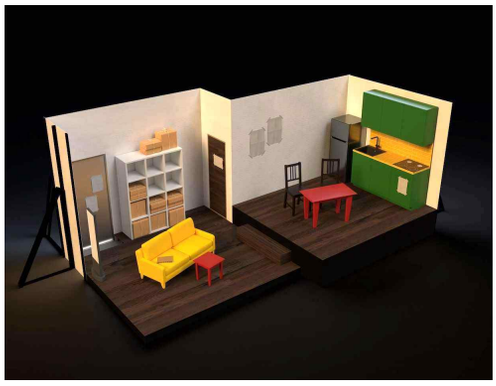


무대팀 1차 회의록

일자 2022. 01. 19	팀장 : 김민지
팀원 : 김희지, 표지혜, 박경우, 백승민, 양수연	
회의 안건	1. 포토존 거예산으로 꾸미기 2. 오퍼(당일 인력) 정하기 3. 무대 아이디어 게시
기타 안건	1. 국에 대한 이해 - 세부 시나리오 보고 숙지해오기 2. 2/7 무대 회장 이경에 소극장 방문 (날짜 투표) 3. 2/7, 2/8 만나야 하나? 4. 포토존 언제까지 계작? 5. 다음 회의 날짜 잡기 - 1/24(월)!! 6. 포토존 콘티, 예산 갑아서 다음 회의 때 포토존 결정하기
추가 내용	절제 테이블 - (못 구할 경우) 그냥 테이블에 시트지 붙이고, 광택제 뿌리기 1/24(월) - 2차 회의
회의결과	1/24(월) 2차 회의까지 각자 포토존 아이디어 콘티 및 예산 정하고, 투표로 결정하기 세부 시나리오 읽고 무대 아이디어 생각해오기 *오퍼(임시)는 단톡 투표로 결정하기 포토존 아이디어 • 지혜 – 종합변신대책관리본부 수사보드(종이, 끈, 압정) • 희지 – 글자 시조지로 '변신', 배우대사 (여백의 미 강조), 배우나 소품 얼굴 액자로 (갈음하게) • 정우 – 면귀 장면, 제목으로 구성.

<그림 10> '세종대학교 세종극회' 수집기록물 예시

○ 서울대학교 서울미대극예술연구회, 2023년 10월 13일 수집(67점)
- 서울을 배경으로 한 작품의 홍보물 및 제작과정 수집
- 작품에서 사용된 무대의상 스케치 수집
- 작품 연출 과정을 담은 연출노트 기록 수집
- 비전자기록물 디지털화(스캔: 15점, 사진촬영: 8점) 후 수집





<그림 11> '서울대학교 서울미대극예술연구회' 수집기록물 예시

○ 극단 생존자프로젝트, 2023년 10월 14일 수집(235점)

- 중랑구 면목동을 배경으로 한 작품의 제작 과정 기록물 수집
- 제작을 위해 했던 현장답사 사진 기록물 수집
- 연극 <면목동 : 기억에 관한 다큐멘터리> 홍보물 및 홍보영상 수집



<그림 12> '극단 생존자프로젝트' 수집기록물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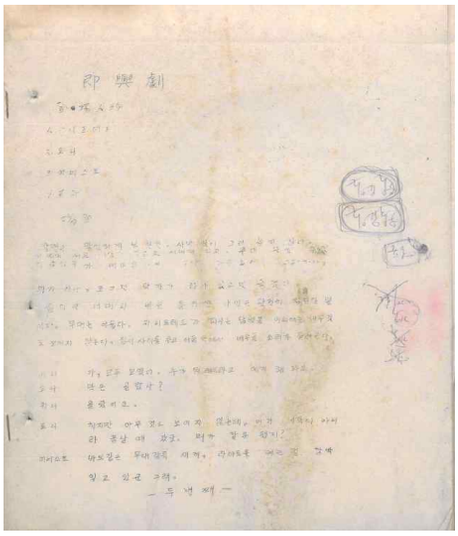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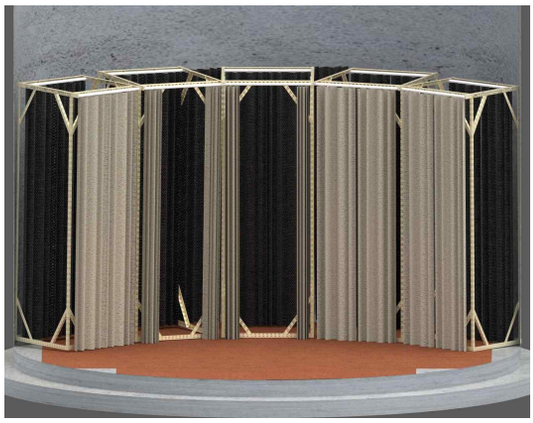
○ 리틀엔젤스예술단, 2023년 10월 17일 수집(70점)

- '선화어린이무용단' 시절 서울에서의 활동 모습을 담은 기록물 수집
- 서울을 배경으로 한 작품 <궁> 공연 기록물
- 서울특별시에서 받은 감사패 사진 기록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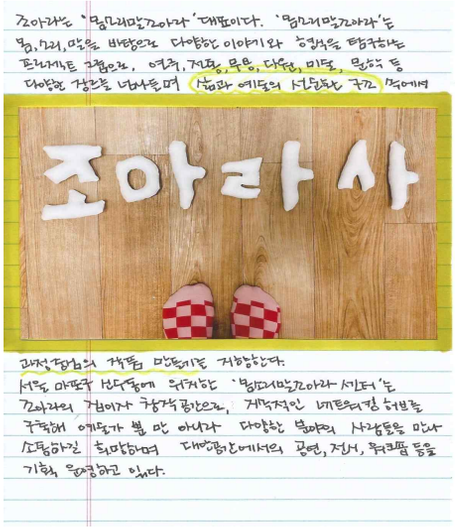
<그림 13> '리틀엔젤스예술단' 수집기록물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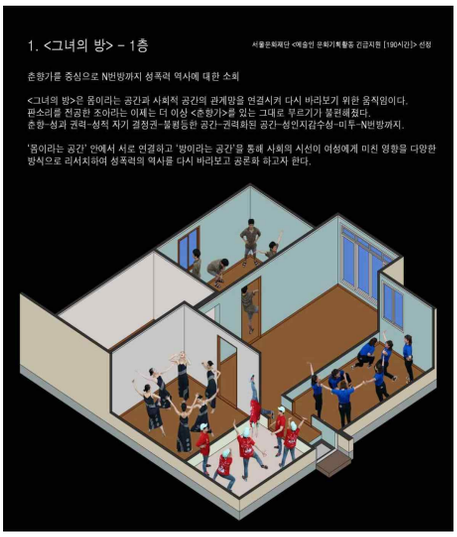
○ 성균관대학교 극예술연구회, 2023년 10월 18일 수집(237점)
- 정기공연 홍보 기록물 및 대본 수집
- 무대를 준비하는 무대팀의 무대 제작과정 기록물 수집
- 방명록 형식의 <잡동사니> 수집
- 비전자기록물 디지털화(스캔: 183점, 사진촬영: 6점) 후 수집

<그림 14> '성균관대학교 극예술연구회' 수집기록물 예시

○ 몸소리말조아라, 2023년 10월 28일 수집(159점)
- <판소리움직임 탐구> 대본 수집
- <조아라사> 홍보물, 에세이 수집
- 각 공연별 아카이빙 자료 수집





<그림 15> '몸소리말조아라' 수집기록물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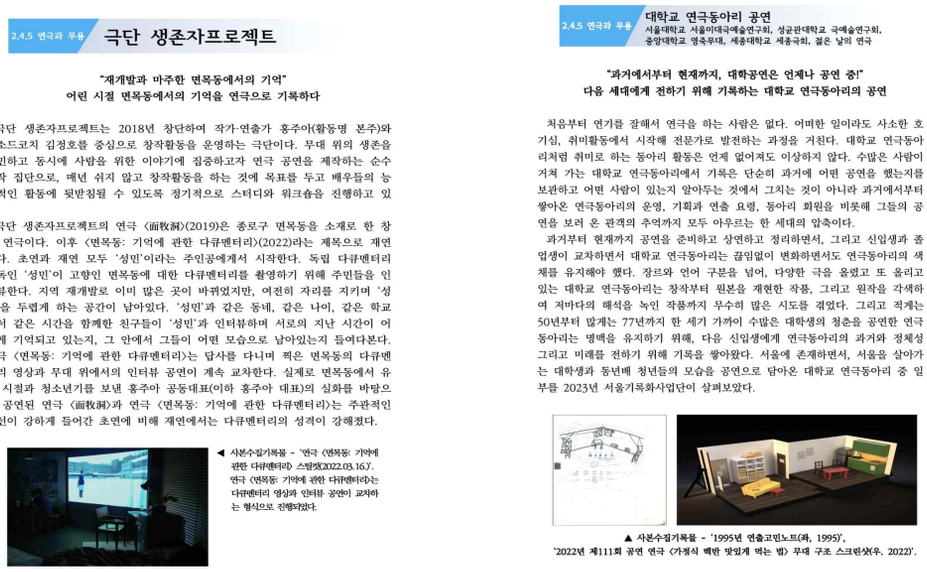
다. 서사형 아카이브

1) 서사형 아카이브의 목적과 특징

- 서사형 아카이브는 본 사업을 통해 수집된 기록물을 단순한 파편적인 기록이 아닌, 하나로 얽혀진 서사의 일부로써 이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
- 이를 통해 특정 서사 내에서 수집 기록물이 서로 연결되고 유기적으로 통합됨으로써 보다 풍부한 의미를 가지게 됨
- 각 수집 리드로부터 수집한 기록물 가운데 핵심이 되는 기록물을 중심으로 그 기록물에 담긴 이야기와 수집 리드와의 종합적인 인터뷰 결과 등을 다각적으로 조합하여 의미 있는 특정 서사를 제시함
- 서사형 아카이브는 다층적인 서사로 구성되어 있어,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가며 기록물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용이함

2) 서사형 아카이브 주요 내용

- 2023년 서울기록원은 '연극과 무용'(S-NAP 2.4.5)을 기반으로 단순히 서울이 배경이나 소재가 되는 작품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수집 및 보존하는 것을 넘어서서, 서울이라는 특별한 장소성과 역사성을 배경으로 기록을 생산하고 보존하는 개인과 단체를 만나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이 각자 무대를 기록하는 이유와 방법을 서사형 아카이브를 통해 포착하고자 함
- 따라서 서울 내 공연예술 현장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개인과 단체가 어떻게 서울이라는 공간에서 활동하고 있는지, 그들이 기록을 어떤 이유에서 생산하고 보존하고 있는지에 대해 주목함
- 서울에서 활동하는 기록 생산자로서 각 수집 리드가 무대를 저마다의 방식으로 기록하는 이유와 그 방법에 대해 탐구하였으며 이는 단순한 기록 수집이 아닌, 각 수집 리드의 기록 수집·생산에 있어서의 목적과 방식에 주목하여 서로 다른 시각과 경험을 종합하고자 함
- 또한, 서울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예술적 활동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발전하고 있는지를 추적함으로써 서울 내 예술적 다양성과 독특한 정체성을 보존하고 서로 다른 행위자들의 이야기를 하나로 엮어 서울의 역동적인 공연예술 생태계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담아내기 위해 노력함
- 본 서사형 아카이브를 통해 서울 내 공연예술의 지형을 기록의 시각으로 새롭게 조명해 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서울 내 공연예술 생태계를 보다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과정에 공헌하고자 함


2.4.5 연극과 무용 극단 생존자프로젝트

"재개발과 마주한 면목동에서의 기억"
어린 시절 면목동에서의 기억을 연극으로 기록하다

극단 생존자프로젝트는 2018년 창단하여 작가·연출가 홍주아(활동명 본주)와 메소드코치 김정호를 중심으로 창작활동을 운영하는 극단이다. 무대 위의 생존을 고민하고 동시에 사람을 위한 이야기에 집중하고자 연극 공연을 제작하는 순수 창작 집단으로, 매년 쉬지 않고 창작활동을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배우들의 능동적인 활동에 뒷받침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스터디와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극단 생존자프로젝트의 연극 〈面牧洞〉(2019)은 종로구 면목동을 소재로 한 창작 연극이다. 이후 〈면목동: 기억에 관한 다큐멘터리〉(2022)라는 제목으로 재연했다. 초연과 재연 모두 '성민'이라는 주인공에게서 시작한다. 독립 다큐멘터리 감독인 '성민'이 고향인 면목동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촬영하기 위해 주민들을 인터뷰한다. 지역 재개발로 이미 많은 곳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자리를 지키며 '성민'을 두렵게 하는 공간이 남아있다. '성민'과 같은 동네, 같은 나이, 같은 학교에서 같은 시간을 함께한 친구들이 '성민'과 인터뷰하며 서로의 지난 시간이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지, 그 안에서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는지 들여다본다. 연극 〈면목동: 기억에 관한 다큐멘터리〉는 답사를 다니며 찍은 면목동의 다큐멘터리 영상과 무대 위에서의 인터뷰 공연이 계속 교차한다. 실제로 면목동에서 유년 시절과 청소년기를 보낸 홍주아 공동대표(이하 홍주아 대표)의 실화를 바탕으로 공연된 연극 〈面牧洞〉과 연극 〈면목동: 기억에 관한 다큐멘터리〉는 주관적인 시선이 강하게 들어간 초연에 비해 재연에서는 다큐멘터리의 성격이 강해졌다.

◀ 사본수집기록물 - '연극 〈면목동: 기억에 관한 다큐멘터리〉 스틸컷(2022.03.16)', 연극 〈면목동: 기억에 관한 다큐멘터리〉는 다큐멘터리 영상과 인터뷰 공연이 교차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2.4.5 연극과 무용 대학교 연극동아리 공연
서울대학교 서울미대극예술연구회, 성균관대학교 극예술연구회, 중앙대학교 영죽무대, 세종대학교 세종극회, 젊은 날의 연극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대학공연은 언제나 공연 중!"
다음 세대에게 전하기 위해 기록하는 대학교 연극동아리의 공연

처음부터 연기를 잘해서 연극을 하는 사람은 없다. 어떠한 일이라도 사소한 호기심, 취미활동에서 시작해 전문가로 발전하는 과정을 거친다. 대학교 연극동아리처럼 취미로 하는 동아리 활동은 언제 없어져도 이상하지 않다. 수많은 사람이 거쳐 가는 대학교 연극동아리에서 기록은 단순히 과거에 어떤 공연을 했는지를 보관하고 어떤 사람이 있는지 알아두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쌓아온 연극동아리의 운영, 기획과 연출 요령, 동아리 회원을 비롯해 그들의 공연을 보러 온 관객의 추억까지 모두 아우르는 한 세대의 압축이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공연을 준비하고 상연하고 정리하면서, 그리고 신입생과 졸업생이 교차하면서 대학교 연극동아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면서도 연극동아리의 색채를 유지해야 했다. 장르와 언어 구분을 넘어, 다양한 극을 올렸고 또 올리고 있는 대학교 연극동아리는 창작부터 원본을 재현한 작품, 그리고 원작을 각색하여 저마다의 해석을 녹인 작품까지 무수히 많은 시도를 겪었다. 그리고 적게는 50년부터 많게는 77년까지 한 세기 가까이 수많은 대학생의 청춘을 공연한 연극동아리는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신입생에게 연극동아리의 과거와 정체성 그리고 비래를 전하기 위해 기록을 쌓아왔다. 서울에 존재하면서, 서울을 살아가는 대학생과 동년배 청년들의 모습을 공연으로 담아온 대학교 연극동아리 중 일부를 2023년 서울기록화사업단이 살펴보았다.

▲ 사본수집기록물 - '1995년 연출고민노트(좌, 1995)', '2022년 제111회 공연 연극 〈가정식 백반 맛있게 먹는 법〉 무대 구조 스크린샷(우, 2022)'.

<그림 16> 서사형 아카이브 예시

라. 다큐멘터리 아카이브

1) 다큐멘터리 아카이브의 목적과 특징

- 유형의 기록물 수집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욱 풍부하고 다면적인 아카이브를 형성하기 위하여 올해 수집주제를 중심으로 한 다큐멘터리 아카이빙 수행
- 공연예술을 둘러싼 서울의 다양한 측면과 역사적인 변화를 다큐멘터리의 강점을 활용하여 의미 있는 영상 기록물을 생산하는 것이 주요 목표임
- 수집된 기록과 다큐멘터리가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수집 리드 중 일부를 선정하여 다큐멘터리 아카이빙을 추진함으로써 서울 내 기록문화를 보다 입체적이고 다층적으로 기록화 추진
- 다큐멘터리를 통해 수집된 내용을 더욱 생생하게 전달하여 기록 수집의 한계를 효과적으로 보완하고, 나아가 더욱 풍부하고 유익한 서울기록화 사업의 다큐멘터리 아카이브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함
- S-NAP의 기본 서사와 실제 수집을 통해 형성되는 새로운 서사를 종합하여 구성하고 이를 다큐멘터리 형태로 전달함으로써, 단순한 기록 수집을 넘어서 서울의 이야기를 풍부하게 전달하는 서사 중심의 아카이빙을 실행함
- 서울의 다양한 측면을 누구나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형태로 다층적이고 생동감 있는 서사를 형성하여, 기록의 기계적인 나열이나 정보의 일방적인 전달을 넘어 서울의 역동성과 다양성을 강조함
- 아울러 서사 중심의 아카이빙을 통해 제작되는 다큐멘터리는 단순한 시각적 기

록물에 그치지 않고, 영상 시청자들에게 서울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적인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경험을 선사함으로써, 감성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시청 경험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기록학 전문가와 다큐멘터리 영상 제작 전문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서로 다른 전문성을 경합하여 높은 수준의 아카이빙을 추진함
- 수집주제 선정, 수집 리드 발굴, 현지 조사, 기록 수집, 다큐멘터리 촬영 등 다양한 단계에서 기록학 전문가와 다큐멘터리 영상 제작 전문가의 협업을 통해 기록학적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다큐멘터리의 매체적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영상 기록을 생산·수집함

2) 다큐멘터리 아카이브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제목	무대를 기록하는 네 가지 방법
주제	공연예술 분야의 기록 활동
감독	홍철민
제작사항	18:54
제작일정	2023.09.18.~11.10.
촬영장소	서울특별시 일대
출연진	홍주아(극단 생존자프로젝트) 장연희(성균관대학교 극예술연구회) 장선웅(성균관대학교 극예술연구회) 서태리(안무가) 조아라(몸소리말조아라)

<표 3> 다큐멘터리 아카이브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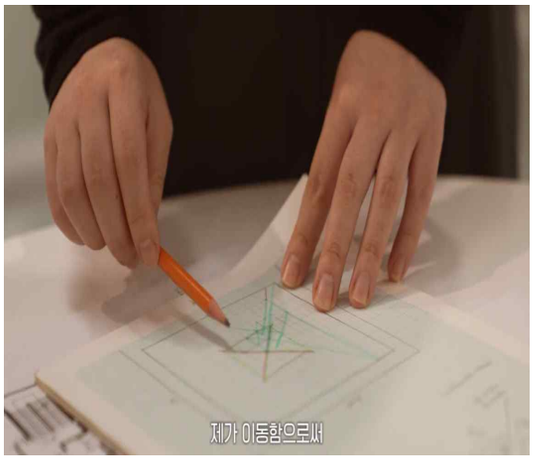
- 기획 의도
  - 연극과 무용은 흔히 '삶 그 자체다'라고 말하고는 한다. 우리의 삶 중에서 한 부분을 가져와 예술로 창조하는 연극과 무용의 속성 때문이다. 작가, 배우, 관객, 스텝 등 연극과 무용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들이 만든 혹은 관람한 연극과 무용 작품에 자기 삶을 연결 짓고 의미를 만든다.
  - 서울을 배경으로 한 작품의 연극과 무용을 기록화한다면 당대 서울 시민들의 삶과 그들의 생각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을 것이다.
  - 그러나 공연예술의 특징 중 하나인 현장성을 이유로 연극과 무용을 기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한 번 공연이 이뤄지면 잊힐 수 있다는 휘발성으로

인해 그 어떤 분야보다 기록화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여러 연극과 무용 단체 및 개인들은 각자만의 방식으로 기록을 시도하고 있다.

-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공연예술 분야가 입은 피해가 매우 크다. 이 과정에서 공연예술 분야에서의 기록화가 지닌 중요성이 다시금 조명되었다. 자체적인 아카이빙을 실시하는 단체도 있고, 자신들의 공연을 영상기록으로 일일이 남기는 단체도 생겨났다. 또한 따로 기록체계가 없던 무용계에서는 독창적인 무보체계를 만들어 가는 시도도 생겨났다.
- 다큐멘터리 아카이빙 제작팀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공연예술 분야 기록화의 중요성이 재조명되는 가운데 이들은 어떻게 기록 활동을 하고 있고, 기록 활동을 어떻게 작품과 접목하는지를 살펴보았으며, 이렇게 완성된 그들의 작품이 서울의 어떤 모습을 담고 있는지, 서울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아카이빙하고자 했다. 그들의 기록문화는 지금, 서울을 살아가는 우리와 미래를 살아갈 우리의 소중한 문화자원이기 때문이다.

ㅇ 시놉시스

- 연극과 무용을 포함한 공연예술은 무대 위의 공연자에 의해 공연되는 동안에만 존재했다가 공연이 끝나면 사라지는 그 자체로서의 특징이 존재한다. 그러나 공연예술의 또 다른 특징인 현장성으로 인해 이를 기록으로 남겼을 때 그것을 보는 이들로 하여금 왜곡된 정보를 얻게 하거나 그 특유의 현장성을 느낄 수 없다는 명백한 한계도 존재한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사태 이후 공연예술계에서의 기록문화의 필요성과 그에 대한 다양한 문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 또한 공연예술은 동시대성을 반영하고 있어 판타지 극을 제외하면 그 시대의 모습과 사상, 사회를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단체가 남기는 기록은 그 자체로 서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이와 관련해 서태리(안무가), 홍주아(극단 생존자프로젝트 공동대표), 장연희·장선웅(성균관대학교 극예술연구회 회장단), 조아라(몸소리말조아라 대표)를 통해 '연극과 무용에서의 기록'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 우리가 만난 이들은 각자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활동을 기록으로 남겨 연극과 무용 작품에 반영하거나 서울의 모습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어떤 이는 어릴 적 자신이 살았던 서울의 모습 혹은 자신이 현재 사는 동네를 기억하고 기록으로 남겨 새로운 작품의 배경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한 단체의 기록을 일일이 남겨 아카이브를 시도하는 단체도 있다. 또 기록으로 남기기 어려운 무용이라는 장르를 기록하기 위해 새로운 기록체계를 만들기 위해 시도하는 이도 있었다. 이들 모두의 목적은 단 하나, '연극과 무용'의 기록화이다. 이들은 왜 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또 어떤 방식으로 그들의 기록을 자신들의 작품에 녹여내고자 했을까.





<그림 17> '무대를 기록하는 네 가지 방법' 다큐멘터리 장면

마. 수집기록물 정리

1) '23년 사업 수집기록물 목록 작성

- S-NAP 기반으로 기록을 분류하여 수집기록물을 식별할 수 있도록 수집기록물 목록 작성
  - 관리번호, 영역(S-NAP), 상하위S-NAP, 서사 키워드, 원파일명, 제목(변경제목), 부제목, 생산자, 법적지위, 소장처, 기록유형(일반문서류, 영상음성류, 사진그림류/전자, 비전자, 날짜(생산일), 서술, 매체유형, 수집기관 유형 등
  - 수집기록물 색인 항목은 아래 표와 같음

No.	항목명	작성내용
1	관리번호	하위S-NAP명_4자리 숫자
2	영역	S-NAP 주제영역명
3	상위 S-NAP	상위 S-NAP 명
4	하위 S-NAP	하위 S-NAP 명
5	서사 키워드	S-NAP 서사 키워드
6	원파일명	수집 당시 제목
7	제목	수집 정리후 변경 제목
8	부제목	부제목 존재 시 작성
9	생산자	기록물 생산자명

No.	항목명	작성내용
10	법적지위	공공기록/비공공기록
11	소장처	기록물 소장 및 관리기관 명칭
12	기록유형1	일반문서류/사진그림류/도서간행물류/영상음성류/박물류/특수전자기록류
13	기록유형2	전자/비전자
14	날짜	기록물 생산일자
15	설명	기록물의 포괄범위와 주요 내용
16	연관기록	기술 단위와 관련된 다른 기술 단위
17	연관정보	기술 단위와 관련된 기관, 인물, 주제, 공간 등 정보
18	수집/이관 기관	수집/이관 기관 또는 인물
19	접근유형	공개/부분공개/비공개/미설정
20	기록매체유형	기록물 확장자명
21	참조번호	민간에서 직접 생산한 기록물, 기존 체계가 없는 경우 미기재하고, 기관이나 조직에서의 이전 관리번호 기재
22	수집기관유형	공공기관/협치기관/민간기관(단체 및 개인)
23	수집유형	기증/위탁/사본수집/구술채록/기록생산
24	비고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특이사항 기재

<표 4> 수집기록물 색인 항목

2) '22년 사업 수집기록물 SDA 시스템 시범 등록 준비 추진

- 2018~2020년 동안 진행된 「서울기록화 사업」을 통해 다양한 공공·민간·협치 영역의 기록물이 수집되었고, 2021년 사업을 통해 수집된 기록물을 통일된 방식으로 정리
- SDA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는 상태로 기존 수집기록물 목록을 정리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SDA 시스템에 수집기록물의 기술 요소를 등록하기 어려운 문제점 발견
  - SDA 시스템은 시정기록물 중심의 공공기록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수집기록물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요소를 등록할 수 없음
  - 기존 SDA 시스템을 수집기록물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수정하거나 수집기록물을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수집기록물 관리 프로그램 필요

- 위의 문제점으로 인해 '21년 사업에서는 목록화되지 않은 수집기록물을 목록화하고 작성된 목록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기존 수집기록물을 정리하고 이후 2021년~2022년 사업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정리
- 수집기록물의 대시민 서비스를 위해 '22년 사업 수집기록물을 SDA 시스템 시범 등록 진행
  - 기존 수집기록물 정리 방식은 '건 단위'로 작성되어 '철-건'구조로 등록해야 하는 SDA 업로드 템플릿 사용을 위해 '철 단위' 목록 정비
- 서울기록원 디지털화 지침(「서울기록원 멀티미디어 기록물 디지털화 기준」)에 따른 포맷 변환
  - '22년 사업 수집기록물(1,780점)을 대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 보존용 및 열람용(서비스용)으로 변환
- 서울시 데이터센터 이관 및 SDA 시스템 등록
  - 수집기록물 정리 및 포맷 변환 시 구동이 안 되는 기록물과 변환이 안 되는 기록물 64점 제외 후 1,716점을 서울시 데이터센터 이관
  - 서울시 데이터센터에 이관된 열람용(서비스용) 기록물을 SDA 시스템과 연동하여 향후 대시민 서비스 기반 마련
  - 수집기록물 색인 항목은 아래 표와 같음

No.	항목명	작성내용
1	철분류번호	수집연도 뒤 2자리 + SAC + 숫자 4자리
2	철제목	22년 서울기록화 수집기록물 + 리드명(소장처)
3	생산자	리드명(소장처)
4	보존기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름
5	생산/접수	생산 또는 접수 여부 입력
6	생산일자	기록물철의 시작 일자 입력
7	종료일자	기록물철의 마지막건 생산 일자 입력
8	건수	1개 철(권)이 포함하고 있는 기록물 건수 입력
9	파일개수	1개 철(권)이 포함하고 있는 파일 건수 입력
10	비고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특이사항 기재

<표 5> 수집기록물철 색인 항목

No.	항목명	작성내용
1	건분류번호	수집연도 뒤 2자리 + SAG + 숫자 4자리
2	건제목	22년 서울기록화 수집기록물 + 리드명(소장처) + 행사명 + 기록물 유형
3	파일분류번호	건분류번호 + 숫자 4자리
4	파일크기_보존용	파일 크기 입력
5	파일크기_서비스용	파일 크기 입력
6	파일명	건제목 + 파일분류번호
7	생산자	리드명(소장처)
8	보존기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름
9	생산/접수	생산 또는 접수 여부 입력
10	생산일자	기록물건의 시작 일자 입력
11	종료일자	기록물건의 종료 일자 입력
12	키워드	기록물건의 내용 분석 후 키워드 입력
13	파일개수	1개 건이 포함하고 있는 파일 건수 입력
14	비고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특이사항 기재

<표 6> 수집기록물건 색인 항목

바. 시사점

1) 기록물 수집정리팀과 다큐멘터리 아카이브 제작팀의 협업 강화

- 올해 수집에서는 기록물 수집정리팀과 다큐멘터리 아카이브 제작팀을 별도로 두어 전문성 확보를 시도함과 동시에 기록물 수집정리팀과의 지속적 소통을 강화하여 보다 안정적인 협업 구조를 마련함
- 수집 과업과 다큐멘터리 제작 과업이 상호보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리드·케이스 파일', '수집 실행계획서'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생산하고 실시간으로 이와 관련된 정보가 긴밀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함
- 결과적으로 S-NAP의 기본 서사와 수집 리드 면담 내용, 기록물 수집 결과 등을 기반으로 4개 리드(서태리, 극단 생존자프로젝트, 성균관대학교 극예술연구회, 몸소리말조아라)를 소재로 하는 다큐멘터리가 제작됨
- 향후 기록물 수집정리팀과 다큐멘터리 아카이브 제작팀의 업무 공유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소통과 효과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공연예술 분야 기록 수집

- 올해 수집에서는 공연 후 사라지는 공연예술 분야의 기록을 수집하여 서울의 다양한 면모를 수집함
  - 이를 위해 공연예술 분야 기록을 수집·보존하는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면담 조사를 통해 수집 영역 및 방법 등의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수집을 실행함
- 공연예술과 관련된 다양한 기록 수집 추진
  - 단순히 서울이 배경이나 소재가 되는 작품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수집 및 보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울이라는 특별한 장소성과 역사성을 배경으로 기록을 생산하고 보존하는 개인과 단체를 만나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이 각자 무대를 기록하는 이유와 방법을 담는 것을 목표로 설정함
  - 기획, 연출, 실연(實演), 관람평까지 포괄하는 다각적인 기록물 수집을 통한 서울 내 공연예술 생태계의 체계적인 기록화 추진

3) SDA 시스템 시범 등록 준비를 통한 기록물의 안정적 보존 체계 구축 발판 마련

- 올해 사업을 통해 「2022년 서울기록화 사업」 수집 기록물의 서울기록원의 SDA 시스템 시범 등록을 추진함
- 향후 SDA 시스템 등록을 통하여 수집 기록물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보존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기록물의 잠재적인 손실이나 훼손을 최소화하고 영구적으로 기록물을 보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함
- 기록물의 안정적인 보존과 함께, 기록물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하여 SDA 시스템을 통하여 수집 기록물의 접근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높음
- 올해 사업을 통해 선행사업 수집 기록물의 대시민 서비스 기반을 구축한 것에 의미가 있으며, 향후 안정적인 보존 체계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은 논의가 필요함
  - 「서울기록화 사업」을 통해 수집되는 기록물은 민간영역의 기록물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SDA 시스템의 경우 공공영역의 기록관리 방식에 최적화되어 민간영역 수집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서비스를 위해 수집 기록물의 색인 항목 및 보존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서울기록원 디지털화 지침(「서울기록원 멀티미디어 기록물 디지털화 기준」)에 따르면 영상 기록물의 서비스용 변환 때 서울기록원 로고를 삽입하게 되어있는 등 민간영역 기록물에 맞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는 예도 있어 민간영역 기록물 수집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함

2 서울의 기록 활동 조사·발굴 및 서울기록화 네트워크 운영

가. 개요

1) 이전 사업의 성과

- 2019년 「서울기록 수집 및 기록콘텐츠 개발 사업」을 통해 서울기록화 네트워크 운영의 기반 마련
- 2020 ~ 22년 「서울기록화 사업」은 2019년의 기틀을 바탕으로 S-NAP과 연결되는 기록·활동·조직을 조사하여 프로세스를 보완하고 서울의 기록 활동 주체와 네트워크 생태계 구축을 중점적으로 시도
- 네트워크 운영 성과를 <2023년 서울기록페어>를 통해 발현

2) 네트워크 운영 방향

- 올해 사업은 2022년의 네트워크 진행 프로세스를 활용하여 서울기록원과 서울에서 활동하는 기록 활동 주체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중심으로 진행
- 구체적인 네트워크 대상 선정은 올해 수집주제인 'S-NAP 2.4.5 연극과 무용'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대상 영역을 분류하고 네트워크 구축
- 분류된 영역별 대상과 면담 조사를 진행하고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위해 <2023 서울기록페어>에서 네트워크 소개 및 기록 활동 발표



<그림 18> 네트워크 구축 프로세스

단계	내용	산출물
후보군 목록작성	수집주제에 따른 1차 네트워크 후보군 목록작성	1차 네트워크 후보군 목록
기록 활동 조사	조사를 통한 기록 활동 여부 확인	2차 네트워크 후보군 목록
네트워크 면담	후보군과 접촉 및 면담 진행	최종 네트워크 후보군 목록 리드·케이스파일
네트워크 결과	면담 조사 일지 작성 및 네트워크 최종 판단	면담 조사 일지

<표 7> 네트워크 진행 프로세스

나. 네트워크 진행

- 수집주제와 네트워크 영역을 기준으로 네트워크 후보군 선정
- 네트워크 후보에 대한 기록 활동 조사 진행
  - 네트워크 후보의 SNS, 홈페이지, 블로그, 사전질문지 등을 활용해 기록 활동의 유무와 정보 파악
- 유선, 이메일, SNS 등을 통해 면담 조사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면담 조사 진행
- 네트워크 면담 조사 결과를 '면담 조사 일지'로 정리하고 최종적으로 서울기록화 네트워크로 확정

다. 네트워크 대상 선정

1) 1차 네트워크 후보군

- 올해 수집주제인 '연극과 무용'을 중심으로 서울에서 활동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조사하여 선정
-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열린 데이터 광장', 올해 수집주제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KOPIS 공연예술통합전산망' 등을 참고하였고, 서울에서의 기록 활동이 예상되는 주체를 취합하여 1차 네트워크 후보군 작성
  - 조사 결과를 공공·협치·민간 영역으로 구분하여 120개의 1차 네트워크 후보군을 구성하고 네트워크 대상 리드 정보를 목록으로 작성
- 영역별 구분 기준과 발굴 경로는 아래에 명시
  - 공공영역: 법적 의무에 근거한 영역으로 서울특별시 본청, 본부·사업소,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으로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열

린 데이터 광장, 언론 보도, KOPIS 등을 통해 발굴
- 협치영역: 공공영역이 민간에 위탁 또는 위임한 영역으로 서울시 및 서울시 산하 기관 홈페이지,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KOPIS에서의 검색을 통해 발굴
- 민간영역: 개인·단체의 자발적인 활동과 참여의 영역으로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과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에 등록된 NGO·NPO 목록, 온라인·SNS 검색, KOPIS에서의 검색을 통해 발굴

구분		서울과 관련 활동의 근거	기록 활동의 특성
공공 영역	본청	지방자치법 지자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규정 등	- 조례, 규칙 등에 따라 서울과 관련한 기록을 생산·관리 - 기록 활동이 사업화 및 법제화되어 있으므로 기록화 시급성 낮음
	본부·사업소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공사·공단	각 공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출자·출연기관	기관별 설립 및 운영 조례	
협치 영역	민간위탁기관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	- 시설 운영, 사업 등을 민간기관이 위탁 및 위임받아 수행 - 행정적 증빙의 목적을 제외한 기록 활동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짐
민간 영역	마을, 조직, NGO·NPO	자발적 활동 및 참여	- 자발적 기록 활동에 의존 - 활동의 과정 및 결과가 기록으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여 기록화 시급성 높음
	개인, 모임		

<표 8> 네트워크 영역별 특성

2) 2차 네트워크 후보군

- 1차 네트워크 후보군을 토대로 기록 활동 여부, 네트워크 구축 의사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책정
- 1차 네트워크 후보군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부적합 후보를 제외하고 새롭게 발굴한 후보를 추가하여 2차 네트워크 후보군 구성

No.	1차 후보군	2차 후보군
1	(재)국립극단	(사)대한무용협회
2	세종문화회관	(사)창무예술원
3	서울문화재단	(사)한국춤문화자료원
4	(재)국립현대무용단	(재)국립극단
5	국립무용단	(재)국립현대무용단
6	국립창극단	(재)예술경영지원센터
7	서울시극단	(재)종로구립궁중무용단
8	서울시무용단	공연예술박물관
9	아르코예술기록원	국립창극단
10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극단 경험과상상
11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극단 리셋(RESET)
12	서울연극센터	극단 백수광부
13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극단 생존자프로젝트
14	미아리고개예술극장	극단 전화벨이 울린다
15	(사)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극단 지우
16	공연예술박물관	리틀엔젤스예술단
17	삼일로창고극장	몸소리말조아라
18	서교예술실험센터	삼일로창고극장
19	예술청	서교예술실험센터
20	천장산우화극장	서울교방
21	극단 산울림	서울대학교 서울미대극예술연구회
22	지금아카이브	서울문화재단
23	(사)대한무용협회	서울시극단
24	(사)한국춤문화자료원	서울연극센터
25	무용역사기록학회	서태리
26	서울연극협회	성균관대학교 극예술연구회
27	장애인문화예술극회 휠	세종대학교 세종극회
28	예술융합연구소 새론	신촌극장
29	갬블러크루	아르코예술기록원
30	극단 신세계	연극실험실 혜화동 1번지
31	극단 두비춤	연희집단 갱
32	함께하는 연극 전태일	예술청
33	㈜래드앤블루	젊은 날의 연극
34	극단 가변	제12언어연극스튜디오
35	Y발레단	중앙대학교 영죽무대
36	극단 골목길	지금아카이브
37	극단 난로	코끼리들이 웃는다
38	극단 수평선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39	극단 리셋(RESET)	함께하는 연극 전태일
40	극단 우솔	홍댄스컴퍼니

No.	1차 후보군	2차 후보군
41	극단 유쾌한씨어터	
42	극단 돼지	
43	극단 지우	
44	창작그룹 가족	
45	극단 생존자프로젝트	
46	극단 팀뉴에이블	
47	문화잇수다	
48	들숨무용단	
49	윤형빈소극장	
50	(사)강선영춤전승원	
51	㈜극단민들레	
52	㈜나몰라패밀리	
53	장애인문화예술 판	
54	극단 경험과상상	
55	창작예술집단 보광극장	
56	극단 전화벨이 울린다	
57	극단 백수광부	
58	충북연극협회	
59	생이 아름다운 극단	
60	신촌극장	
61	제12언어연극스튜디오	
62	연극실험실 혜화동 1번지	
63	극단 아어	
64	극단 여행자	
65	극단 작은방	
66	펭귄 어패럴	
67	코미디캠프	
68	극단 청년단	
69	여기는 당연히, 극장	
70	댄스프로젝트 뽑끼	
71	코끼리들이 웃는다	
72	연희집단 갱	
73	극단 크리에이티브 바키	
74	서울의 연극과 무용 축제	
75	동시대의 서울 무용	
76	서울프린지페스티벌	
77	한국소극장협회	
78	강완두	
79	연극쟁이	
80	자줏빛 여름	

No.	1차 후보군	2차 후보군
81	츄츄비	
82	날라리	
83	김갤굴	
84	국립창극단 쳐돌이	
85	purplerain1211	
86	마리안	
87	봄뫼	
88	인오	
89	31992	
90	DARK MANGNANI	
91	비글이	
92	에그머LINA	
93	석지훈	
94	서울교방	
95	서태리	
96	리틀엔젤스예술단	
97	서울중구문화원	
98	국립정동극장	
99	서울돈화문국악당	
100	(사)창무예술원	
101	프로젝트 여기에서저기로	
102	(사)한국춤협회	
103	(재)종로구립궁중무용단	
104	툇마루무용단	
105	(사)보훈무용예술협회	
106	젊은 날의 연극	
107	서강대학교 서강연극회	
108	동국대학교 극예술연구회	
109	명지대학교 극예술연구회 알	
110	서울대학교 서울미대극예술연구회	
111	성균관대학교 극예술연구회	
112	세종대학교 세종극회	
113	연세대학교 연세극예술연구회	
114	중앙대학교 영죽무대	
115	모므로움직임연구소	
116	연희집단 더 광대	
117	화용월태	
118	은평재활원	
119	홍댄스컴퍼니	
120	몸소리말조아라	

<표 9> 1, 2차 네트워크 리드 후보군 목록

라. 네트워크 면담 대상

1) 최종 네트워크 대상 선정

- 올해 수집주제를 기반으로 기록 활동을 하는 네트워크 대상 후보군 조사
  - 120개의 1차 네트워크 후보군 중 현재 활동이 종료되었거나 기록 활동이 없는 곳을 제외하고 40개의 2차 네트워크 후보군 선별
- 2차 네트워크 후보군 중 최종적으로 20개의 리드를 네트워크로 확정
  - 2차 네트워크 후보군에서 제외된 20개의 네트워크 후보는 향후 서울기록화 사업의 유력한 네트워크 후보로 판단됨
- 20개의 최종 네트워크 대상과 네트워크 면담을 진행하여 기록 활동 과정 및 현황, 보유 기록물과 기록관리 애로사항 등을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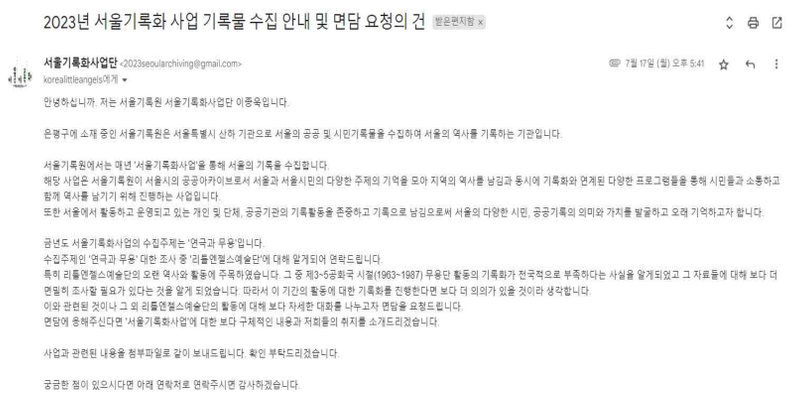
No.	영역	최종 네트워크 대상
1	민간	(사)한국춤문화자료원
2	공공	아르코예술기록원
3	공공	(재)예술경영지원센터
4	공공	(재)국립극단
5	민간	지금아카이브
6	민간	신촌극장
7	공공	서울연극센터
8	민간	극단 생존자프로젝트
9	민간	코끼리들이 웃는다
10	민간	연희집단 갱
11	민간	서울교방
12	민간	리틀엔젤스예술단
13	민간	젊은 날의 연극
14	민간	몸소리말조아라
15	민간	서태리
16	민간	세종대학교 세종극회
17	민간	중앙대학교 영죽무대
18	민간	성균관대학교 극예술연구회
19	민간	서울대학교 서울미대극예술연구회
20	민간	홍댄스컴퍼니

<표 10> 최종 네트워크 대상 목록

마. 네트워크 면담

1) 네트워크 리드 접촉

- 2차 네트워크 리드 후보에게 유선, 이메일 등을 사용하여 접촉하고 네트워크 면담을 통해 기록 활동과 생산기록물, 기록관리 요구사항 등 조사


2023년 서울기록화 사업 기록물 수집 안내 및 면담 요청의 건 받은편지함 ×

서울기록화사업단 <2023seoularchiving@gmail.com> 7월 17일 (월) 오후 5:41

koreallittleangels에게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기록원 서울기록화사업단 이종욱입니다.

은평구에 소재 중인 서울기록원은 서울특별시 산하 기관으로 서울의 공공 및 시민기록물을 수집하여 서울의 역사를 기록하는 기관입니다.

서울기록원에서는 매년 '서울기록화사업'을 통해 서울의 기록을 수집합니다.
해당 사업은 서울기록원이 서울시의 공공아카이브로서 서울과 서울시민의 다양한 주제의 기억을 모아 지역의 역사를 남김과 동시에 기록화와 연계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함께 역사를 남기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서울에서 활동하고 운영되고 있는 개인 및 단체, 공공기관의 기록활동을 존중하고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서울의 다양한 시민, 공공기록의 의미와 가치를 발굴하고 오래 기억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서울기록화사업의 수집주제는 '연극과 무용'입니다.
수집주제인 '연극과 무용' 대한 조사 중 '리틀엔젤스예술단'에 대해 알게되어 연락드립니다.
특히 리틀엔젤스예술단의 오랜 역사와 활동에 주목하였습니다. 그 중 제3~5공화국 시절(1963~1987) 무용단 활동의 기록화가 전국적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그 자료들에 대해 보다 더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의 활동에 대한 기록화를 진행한다면 보다 더 의의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된 것이나 그 외 리틀엔젤스예술단의 활동에 대해 보다 자세한 대화를 나누고자 면담을 요청드립니다.
면담에 응해주신다면 '서울기록화사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과 저희들의 취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첨부파일로 같이 보내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림 19> 이메일을 통한 네트워크 리드 접촉

영역	리드명	접촉상태	기록 활동
민간	서태리	·8월 17일 면담요청(메일) ·8월 22일 면담 진행(대면) ·9월 11일 <2023 서울기록페어> 렉처 프로그램 강연 요청 ·9월 21일 기록물 사본 수집(메일) ·9월 26일 다큐멘터리 촬영(대면)	·공연별 사진자료 ·공연별 영상자료 ·공연별 실물자료 ·작업별 과정이 담긴 기록(기획~연출 등) ·<기록하는 2인무> 안무노트
민간	극단 생존자 프로젝트	·6월 28일 면담요청(메일) ·7월 21일 면담 진행(대면) ·9월 4일 <2023 서울기록페어> 렉처프로그램 강연 요청(메일) ·10월 10일 다큐멘터리 촬영(대면) ·10월 14일 기록물 사본 수집(메일)	·공연별 사진자료 ·공연별 영상자료 ·포스터, 티켓 등 실물자료 ·관객 리뷰 자료 ·면목동 연극 제작을 위한 사전답사 자료

<표 11> 2차 네트워크 접촉일지

2) 네트워크 면담 진행

- 네트워크 면담은 네트워크 대상의 구체적인 기록 활동과 생산기록물, 기록관리 요구사항 등의 파악을 위해 진행
- 2차 네트워크 후보군을 대상으로 유선, 이메일, SNS 등으로 2차 접촉을 통해 네트워크 면담 의사 확인

3) 최종 네트워크 확정

- 2023년 7월부터 10월까지 면담을 진행한 20개의 네트워크 후보 리드를 최종 네트워크로 확정
- 네트워크 면담의 과정과 결과는 '리드·케이스 파일'과 '면담 조사 일지'로 정리
- 최종 네트워크 대상으로 확정된 20개 네트워크 리드의 면담 주요 내용은 아래 표에 명시

리드명	면담 주요 내용
(사)한국춤문화자료원	- 심소(心韶) 김천흥(金千興, 1909~2007) 선생의 아카이브를 시작으로 한국 전통춤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음 - 서울기록원이 무용 전문 아키비스트를 두어 민간의 무용 아카이브를 관리해 주는 등의 지원을 해주길 바람 - 서울기록화 사업의 기록 수집주제가 장소나 시대 등을 기준으로 더욱 구체적으로 선정되길 바람
아르코예술기록원	- 아르코예술기록원은 예술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하기 위해 설립된 전문 기관임 - 아르코예술기록원을 포함한 여러 기관들과 중복되지 않고 상호보완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기록물 수집 필요 - 서울기록원에서 기록 관리 교육을 필요로 하는 연극과 무용 관련 개인이나 단체들을 위한 지원 체계를 운영해 주기를 바람
(재)예술경영지원센터	-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예술의 유통과 산업화를 중심으로 예술조직의 경영과 관련 종사자를 지원하는 조직임 - 서울에는 한강, 도성을 비롯한 유서 깊은 역사적 공간이 많은 만큼 공간 아카이빙이나 근현대 역사 아카이빙을 서울기록원이 추진하길 바람 - 서울기록원의 행사, 교육 등의 프로그램 참여 또는 협조 의지가 높음
(재)국립극단	- 국립극단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연극 예술 단체로서 자체 극단을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국립극장임 - 70여 년의 역사를 가진 국립극단의 자료들을 국립극장에서 이관 받아 정리하는 것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아카이브 구축이 완료된 후 서비스 방식에 대해서는 현재 고민 단계에 있음 - 기록물 폐기와 관련하여 차후 서울기록원의 컨설팅을 받기를 희망함
지금아카이브	- 동시대의 모습을 즉각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연극을 통해 '지금', 즉 현재를 아카이빙함으로써 다양한 삶의 형태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아카이브'를 구축하게 됨 - 서울을 소재로 한 연극을 기획한 사례는 없으나 서울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연극을 창작하기 때문에 각 작품에 자연스럽게 서울의 모습이 녹아들게 된다고 판단함 - 서울기록화 사업 기간이 확대되고, 또 하나의 주제에 대한 수집이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속 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되기를 바람

리드명	면담 주요 내용
신촌극장	- 작가가 자신의 메시지를 가장 적절한 방식의 표현을 통해 관객에게 전달하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개최되는 곳으로 본 극장의 정체성을 정의함 - 신촌극장 아카이빙북 『말하기듣기』는 개관 7주년이 되는 2024년 안에 발간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음 - 신촌극장에서 개최되었던 공연 등의 홍보 포스터나 사진, 영상자료는 보유하고 있으나 체계적으로 정리되지는 않은 상태임 - 서울을 직접적인 소재로 한 공연은 없었지만 거의 모든 작품에 자연스럽게 지역성이 녹아있었을 것으로 예상함 - 서울기록원이 연극과 무용의 흐름을 본 사업을 통해 담아주기를 희망함
서울연극센터	- 서울연극센터의 주된 설립 목적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연극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음 - 웹진 <연극in>은 다른 매체들이 잘 다루지 않는 창작자들과 동시대의 관점을 반영하는 연극을 주로 다루고 있음 - 서울연극협회, 한국연극평론가협회 등 다양한 연극 관련 협회와의 네트워크가 지속되고 있으며, 개별 극장과도 오픈 포럼 등을 통한 간접적인 교류를 이어가고 있음 - 서울기록원의 컨설팅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음
극단 생존자프로젝트	- 연극 생태계 내에서 배우로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8년 극단을 창단함 - 고향인 중랑구 면목동을 배경으로 한 연극 <面牧洞>과 <면목동: 기억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기획·제작함 - 아카이빙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외장하드와 구글드라이브를 이용하여 레퍼런스, 대본, 영상, 홍보물, 공연 피드백 등 기록을 관리하고 있음
코끼리들이 웃는다	- '장소성', '커뮤니티', '관객 참여' 등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공연을 기획하고 있음 - <서촌 오딧세이>, <후원몽-창덕궁 새로 보기>, <독산 여러분> 등 서울을 배경으로 하는 공연을 다수 기획·제작함 - 모든 공연은 사진·영상으로 기록하며 이 자료들을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 관리함 - 공연을 위한 인터뷰 내용이나 기획 과정의 다양한 자료들은 아날로그 방식으로 작업노트를 통해 기록하고 있음 - 아카이빙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으나 인력 및 자금 등의 문제로 체계적인 아카이브 관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연희집단 갱	- 2014년부터 전통 연희를 기반으로 창작 작업을 이어오고 있는 공연예술 집단 - 전통예술이 현대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들 속에 위치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음 - <도시길놀이-까마귀>는 과거로 대표되는 전통 연희로서 길놀이패 공연과 현재로 대표되는 현대 도시의 공간이 중첩될 때 발생하는 이질감을 이미지화하기 위한 작업으로, 을지로, 남산골, 보라매 등 서울의 다양한 공간에서 공연되어옴 - 연습 기록, 퍼포먼스 기록, 행정 기록 등 방대한 양의 기록물을 구글 드라이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관리하고 있음

리드명	면담 주요 내용
서울교방	- 전통무용의 원형을 바탕으로 현대적인 해석을 시도하고 있는 무용 단체로, '김경란류 권번예맥'을 이어나가고 있음 - 서울의 향토 문화로서 무용 예술 전승을 목표로 하지 않으며, 각 예인의 개인적인 예술적 성취에 주목하고 있음 - 40여 개의 영상기록을 유튜브에 업로드하였으나, 본질적으로 '춤'이라는 것은 몸에서 몸으로 전수되는 예술이므로 글이나 영상과 같은 매체로 완전하게 기록할 수 없음 - 무용계에서 아카이빙 작업이 상대적으로 미진하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지만 현재 개인적으로는 아카이빙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는 못하고 있음 - 서울기록원에서 무용과 관련된 기록 수집을 진행한다면 전문 무용인보다는 서울시민을 중심으로 서울 내 무용 문화를 기록화하는 데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함
리틀엔젤스 예술단	- 1962년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알리기 위해 창단된 어린이 예술단으로, 한국 무용과 합창 등을 공연하고 있음 - 서울을 주제로 한 공연 레퍼토리는 없으나 서울시의 요청에 따른 다수의 공연 경험이 있으며, <궁>이나 <화관무>와 같은 작품의 배경으로 서울의 궁이 그려진다는 점에서 서울의 지역성이 의도치 않게 작품에 녹아들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 내부적으로 디지털화가 어려운 사진, 영상 등의 기록물은 업무협약을 체결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속 아르코예술기록원에 이관하여 디지털화를 위탁한 상태임 - 서울기록원과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이어나가기를 희망함
젊은 날의 연극	- 서강대학교 연극 동아리 '서강연극회' 활동 경험을 통해 연극에 대한 기록의 필요성을 절감한 후 현재는 대학 동아리의 연극에 대한 개인적인 감상평을 기록하기 위한 네이버 블로그 '젊은 날의 연극' 운영 중 - 디지털 자료들은 블로그에 업로드하고 있으며 팸플릿, 티켓 등 연극 관람을 통해 수집한 실물 홍보 자료들은 별도 보관하고 있음 - 프로의 공연에 대한 기록도 중요하지만 대학 동아리 공연과 같은 아마추어 공연의 기록 역시 서울기록원에서 관심을 가져주기를 희망함
몸소리말조아라	- 몸과, 소리, 말 등 세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다양한 예술 형식을 탐구하는 프로젝트 그룹으로 삶과 예술의 선순환 구조 속에서 작품 창작을 지향함과 동시에, 공연 창작의 모든 과정의 기록화를 추구하고 있음 - '몸소리말조아라 센터'가 위치한 마포구 신수동의 상인들을 인터뷰하고,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글, 영상, 사진 등을 기록한 후 댄스필름 <MISSING JOAHRA> 및 다양한 오브제 창작을 포함하는 다원예술 프로젝트 <조아라사> 진행 - <판소리움직임 탐구>, <조아라사>, <어쩔 수가 없어>, <반려프로젝트> 등 다양한 작품들을 창작할 때마다 다양한 형식으로 아카이빙을 진행하고 있음

리드명	면담 주요 내용
서태리	- 무용은 객관적인 기록이 어려운 굉장히 주관적인 예술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해 가능한 객관적인 형식의 기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무용에 적합한 기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함 - 실제로는 주관적인 안무의 색채가 담긴 기록 형태가 산출되어, 음악에서의 악보와는 달리 무용에서의 무보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됨 - 현재는 무용 예술의 특성 중 하나인 휘발성을 극복해야 할 한계로 접근하지 않고, 무용의 본질적인 특성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작품의 기록화에 대해서는 향후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예정임 - 지면 기록, 이미지 파일, 음성, 영상 등의 기록물 생산
세종대학교 세종극회	- 1973년에 시작된 세종대학교 연극 동아리로, 여름·겨울 정기 공연과 봄·가을 워크숍 공연 등 1년 기준으로 총 4회의 공연을 개최함 - <군자동 파출소>, <택시 드리벌>, <명> 등 서울을 배경으로 한 작품을 공연한 경험이 있음 - 2014년 개설한 네이버 카페에 포스터나 팸플릿 같은 홍보물이나 공연 영상, 음원 등의 기록을 업로드하여 관리 중이며 실물 자료들도 별도로 보관하고 있음
중앙대학교 영죽무대	- 1969년 창설된 중앙대학교의 연극 동아리로, 현재까지 약 160회에 걸친 다양한 공연을 개최해옴 - '서울'이라는 지역성이 드러나는 작품으로는 <옥수동에 서면 압구정동이 보인다>, <서울에 올 땐 머리에 꽃을 심으세요> 등을 공연한 사례가 있음 - 방명록 형태의 『영죽일지』나 각 공연이 종료될 때마다 진행하는 종합평가 성격의 합평 이후 그 내용을 작성하는 『합평회록』 등을 통해 영죽무대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기록화함 - 공연의 기획안, 예산안, 무대 기획안, 소품 사용 내역, 공연 사진, 영상 등을 생산·보유하고 있음
성균관대학교 극예술연구회	- 1946년 창설되어 6.25전쟁과 코로나19 시기 두 차례를 제외하고는 매년 꾸준히 공연을 진행해온 성균관대학교의 연극 동아리로, 수원에 율전 캠퍼스가 생긴 이후에는 명륜 캠퍼스와 율전 캠퍼스의 연합 체제로 운영하고 있음 - 서울에 위치한 가장 오래된 대학 중 하나인 성균관대학교와 역사를 함께 해온 만큼 성균관대학교 극예술연구회의 공연, 그리고 작품을 선정하는 기준 자체에 '서울'이라는 지역성이 모두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함 - 홍보물 등의 실물 기록물들은 동아리방에 보관 중이며, 네이버 카페를 거쳐 현재는 구글드라이브와 노션을 통해 자료를 공유·정리·보관하고 있으며 공연 영상은 주로 유튜브를 활용하여 관리 중임 - 동아리의 역사가 담긴 방명록인 <잡동산>은 1987년부터 작성되어 현재 명륜·율전 캠퍼스마다 각각 40여 권이 보관되어 있으며, 이 방명록에는 부원들의 잡담과 낙서, 연극 공연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 성균관대학교 극예술연구회의 독특한 특색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됨

리드명	면담 주요 내용
서울대학교 서울미대극예술연구회	- 1965년 창립된 서울대학교의 연극 동아리로, <택시 드리벌>, <死線: 죽음에 관하여>, <가정식 백반 맛있게 먹는 법> 등 서울을 배경으로 한 작품을 공연한 사례가 있음 - 서울대학교 총연극회와 달리, 단과대학 동아리로서 서울미대극예술연구회는 무대 디자인 등 시각적 요소에 집중하며, 또 배경음악을 직접 작곡한다는 점에 특징이 있음 - 상영 준비 중인 극과 관련해서는 노션을 이용해 자료를 공유·정리하며, 설문조사·예산안 등 종료된 공연의 자료는 구글드라이브를 통해 아카이빙하고 있음 - 1960년대 기록물이나 비밀 일기처럼 돌아가면서 작성했던 교환 일기 등 다양한 옛날 기록물을 보전하고 있으나 보관 상태가 양호하지 못함
홍댄스컴퍼니	- 2003년 창단한 단체로, 행복하고 창의적인 삶을 위한 무용 예술의 적용과 그 가치를 알리기 위해 다양한 공연과 문화 예술교육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단체 - 창단 후 2013년까지 약 10년간은 전문 무용가들이 활동하는 현대 무용 단체였으나, 서울문화재단의 '서울 댄스 프로젝트'를 통해 은평재활원 거주 장애인을 만난 것을 계기로 '춤추는 은평재활원'으로 발전하면서 이후 장애인 전문 무용 단체로 그 성격이 변화하게 되었으며 현재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만나 춤을 가르치는 교육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다페르튜토 스튜디오와 '안무에 대한 아카이브'를 주제로 진행한 프로젝트 <춤매뉴얼>(2014), '춤추는 은평재활원' 아카이빙 자료집 발간(2020) 등 진행 - 아카이빙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인력과 자금의 문제로 기록관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

<표 12> 최종 네트워크 면담 주요 내용

바. 기존 네트워크 현황조사

1) 개요

- 2018~22년 서울기록화 네트워크의 기록 활동 유지 여부에 중점을 두고 현황 업데이트
  - 서울기록화 네트워크 총 187개
  - 온라인 조사와 이메일 및 유선 조사 진행

2) 현황조사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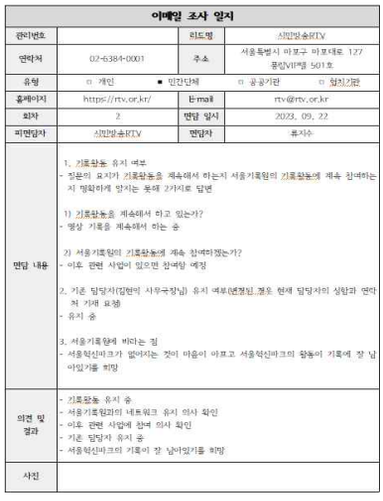
- 기존 서울기록화 네트워크 현황 업데이트를 위해 온라인 조사를 실시함
- 온라인 조사 결과 15개의 리드가 운영 종료, 119개의 리드가 현상 유지 중인 것으로 파악됨
- 해당 네트워크 내 담당자 확인이 필요한 리드(온라인 조사로 기록관리 담당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혹은 활동이 지속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리드(온라인 조사로 기록활동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에 해당)를 대상으로 이메일 및 유선 문의를 추가적으로 진행함

- ㅇ 선행 사업에서 발굴된 서울기록화 네트워크 가운데 단순 목록 수집으로 발굴된 단체 혹은 개인은 서울기록원과 네트워크가 구축된 것으로 판단할 수 없어 전체 네트워크 목록에서 제외함
  - 네트워크 목록 제외 기준: 리드:케이스파일 미작성, 면담조사 미이행 등
- ㅇ 추가 조사가 필요한 53개 리드 중 네트워크 목록 제외 기준에 해당하는 39개 리드를 제외한 총 14개의 네트워크 리드에 대해 추가 조사 진행
  - 이메일 문의: 12개, 유선 문의: 2개
  - 이메일 문의 회신: 2개, 유선 문의 회신: 1개
- ㅇ 이메일 및 유선 문의 결과
  - 현상 유지: 2개
  - 운영 종료: 1개
  - 조사 미응답: 11개
- ㅇ 최종 기존 네트워크 현황조사 결과는 아래 표와 같음

리드 구분	서울기록화 네트워크 현황
네트워크 유지	121개
운영 종료	16개
조사 미응답	11개
네트워크 제외	39개
합계	**187개**

<표 13> 서울기록화 네트워크 현황조사 결과



이메일 조사 알지

관리번호		리드명	시민방송RTV
연락처	02-6384-0001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풍림VIT빌딩 501호
유형	□ 개인 ■ 민간단체		□ 공공기관 □ 정치기관
홈페이지	https://rtv.or.kr/	E-mail	rtv@rtv.or.kr
회차	2	면담 일시	2023. 09. 22
피면담자	시민방송RTV	면담자	류지수
면담 내용	1. 기록활동 유지 여부 - 질문의 요지가 기록활동을 계속해서 하는지 서울기록원의 기록활동에 계속 참여하는지 명확하게 알지는 못해 2가지로 답변 1) 기록활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가? - 영상 기록을 계속해서 하는 중 2) 서울기록원의 기록활동에 계속 참여하겠는가? - 이후 관련 사업이 있으면 참여할 예정 2. 기존 담당자(김현아 사무국장님) 유지 여부(변경된 경우 현재 담당자의 성함과 연락처 기재 요청) - 유지 중 3. 서울기록원에 바라는 점 - 서울혁신파크가 없어지는 것이 아쉽고 서울혁신파크의 활동이 기록에 잘 남아있기를 희망		
의견 및 결과	- 기록활동 유지 중 - 서울기록원과의 네트워크 유지 의사 확인 - 이후 관련 사업에 참여 의사 확인 - 기존 담당자 유지 중 - 서울혁신파크의 기록이 잘 남아있기를 희망		
사진			

<그림 20> 서울기록화 네트워크 현황조사 내용(이메일 조사)

사.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

1) 개요

○ 목적

- 서울기록 생태계 조성과 순환을 위한 서울기록화 네트워크 프로그램 기획·운영
- 서울 내 기록문화 확산을 위하여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기록에 대한 인식을 확장할 수 있게 하는 계기 마련

○ 추진 방향

- 「2023년 서울기록화 사업」의 수집주제 중 하나인 '연극'과 연계한 프로그램 기획을 통하여 참여자들의 프로그램 참여 결과물을 또 하나의 서울기록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구성함
- '연극'에 관심도가 높은 개인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서울기록원에 대한 인지도를 향상하고, 더 나아가 프로그램 참여자와 서울기록원 사이의 새로운 교류와 네트워킹을 유도함

2) <한 편의 희곡이 되는 나의 서울 이야기>

○ 프로그램 개요

- 프로그램 기간: 2023년 8월 9일~30일 19시(매주 수요일, 총 4회 진행)
- 프로그램 장소: 서울기록원 교육실(1~3회차 프로그램), 컨퍼런스룸(4회차 프로그램)
- 프로그램 참여 대상: 19세 이상 서울시민 10인 이내



<그림 21> 네트워크 프로그램 홍보물 사진

○ 프로그램 내용

- 상연보다는 독자에게 읽히는 것을 목적으로 쓰인 희곡을 뜻하는 '레제 드라마(Lese Drama)'의 개념을 빌려와 서울 시민들의 살아있는 일상과 경험 그리고 추억을 한 편의 단막 희곡으로 집필하는 프로그램 기획
- 극작가의 지도와 안내를 따라 희곡의 기초에 대해 학습한 후, '나'와 서울의 기록을 소재로 '나만의 희곡' 한 편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함
- 마지막 회차에는 연극배우들을 초청하여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작성한 희곡을 낭독하는 <희곡 낭독회>를 개최함
- 개인적인 추억과 기억을 담은 기록이 작품이 되는 경험을 통해, 개인의 작은 역사가 한 시대를 증언하는 이야기, 더 나아가 예술이 됨을 직접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함

○ 프로그램 세부 일정

주차		내용
1주 (8/9)	1교시(50분)	"서울에서 살아가는 사람" - 희곡의 기초와 구조를 배웁니다. 나의 내면 속 일상 감정들의 목소리를 듣고 기록합니다. 내 안에서 꺼낸 감정들로 캐릭터 만들기에 도전합니다. - 글쓰기 및 검수
	2교시(80분)	
2주 (8/16)	1교시(50분)	"서울 속 나의 안전가옥" - 내가 좋아하는(했던) 머물고 싶은 서울 속 공간을 배경으로 설정하고 묘사해 봅니다. - 글쓰기 및 검수
	2교시(80분)	
3주 (8/23)	1교시(50분)	"서울, 나와 내가 만나다" - 내가 설정한 공간과 시간 안에, 1주차에 만든 캐릭터를 배치해봅니다. 캐릭터들이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대화쓰기를 연습합니다. - 글쓰기 및 검수
	2교시(80분)	
4주 (8/30)	1교시(50분)	"희곡 완성과 낭독 파티" - 완성된 희곡을 공유합니다. 초대된 배우들의 목소리로 우리가 만든 희곡을 낭독해 봅니다. 친구와 가족을 초대하여 내가 쓴 희곡을 들려줍니다.(희곡이 완성되지 않은 참여자는 희곡 작성 마무리)
	2교시(50분)	

<표 14> <한 편의 희곡이 되는 나의 서울 이야기> 세부 일정

○ 프로그램 운영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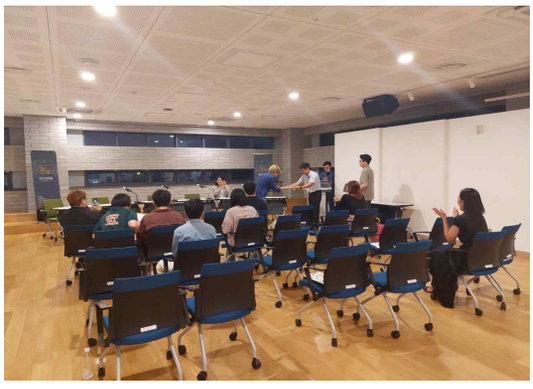
- 극작가 장영(1인 극단 '눈과빛과영')을 강사로 초빙하여 프로그램의 전문성 확보
- 연극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프로그램 참여자 수를 10인 이내로 제한하여 운영과 진행의 효율성을 확보함
-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주차별로 주어지는 글쓰기 과제를 수행하고, 강사는 제출된 글을 첨삭하고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프로그램 진행 기간 내에 모든 참여자들이 단막 희곡 한 편을 성공적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

- <희곡 낭독회>를 통해 완성된 희곡이 단순히 글로 남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들의 서울에 대한 이야기가 연극배우들의 목소리와 연기를 통해 하나의 완성된 예술로 거듭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함




<그림 22> 네트워크 프로그램 현장 사진

○ 수료증 및 기념품 지급




<그림 23> 수료증 수여식 및 기념품 지급

○ 프로그램 운영 및 결과 홍보

- 행사 홍보 보도자료 <나만의 서울 이야기를 한 편의 작품으로…서울기록원, 희곡 쓰기 프로그램 운영>('23. 8. 9.[수] 조간) 배포
- 행사 결과 보도자료 <서울기록원, 시민이 쓴 '나의 서울 이야기' 희곡집 발간>('23. 10. 5.[목] 조간) 배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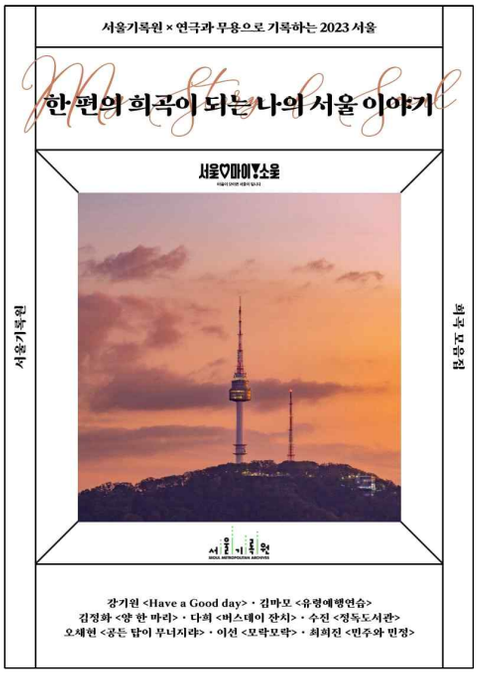
○ 프로그램 운영 결과

- 극작가 장영(1인 극단 '눈과빛과영')을 강사로 초빙하여 4주간 매주 수요일 19~21시까지 프로그램 운영
- 연극에 관심이 있는 8인의 시민이 4주간 프로그램 참여하여 단막 희곡 한 편을 성공적으로 완성함
- 마지막 주차에는 서울기록원 교육실(3층)에서 컨퍼럼스룸(5층)으로 이동 후 연극배우들을 초대하여 <희곡 낭독회>를 진행함

- 이를 통해 참여자들에게 단순히 글로 남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들의 서울에 대한 이야기가 연극배우들의 목소리와 연기를 통해 하나의 완성된 예술로 거듭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려는 프로그램의 목적을 달성함

○ 희곡 모음집 제작

- 프로그램 참여자 8인의 희곡 작품을 엮은 프로그램 결과 자료집을 제작한 후 서울기록원 누리집에 게재하여 프로그램 성과를 대외적으로 공유함



저자명	희곡명
강기원	Have a Good day
김마모	유령예행연습
김정화	양 한 마리
다희	버스데이 잔치
수진	정독도서관
오채현	공든 탑이 무너지랴
이선	모락모락
최희진	민주와 민정

<그림 24> 희곡 모음집 표지 및 희곡 목록

3 <2023 서울기록페어> 개최

가. 개요

1) 서울기록페어 개최 목적

- 서울의 기록 활동 발굴과 서울기록화 네트워크 운영 등 서울기록화 사업의 성과와 중요성을 대외적으로 공유하는 플랫폼으로서 서울기록페어 기획·운영
- 서울기록페어를 통해 시민들과의 상호작용을 강화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기록원'이라는 서울기록원의 정책 비전 실현 노력
- 서울의 다양한 지역에서 이뤄지는 기록 관련 활동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서울기록원이 중심이 되는 서울기록화 네트워크 구축
- 기록관리 관련 분야에서 다양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록활동가, 기록전문가, 유관기관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까지 다양한 사회층의 참여를 촉진하여 전문가와 시민 간의 유익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서울기록원의 존재와 목표를 일반 시민에게 알리고 서울 내 기록 활동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킴으로써 서울기록원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함

2) 서울기록페어 운영 개요

- 행사명: <2023 서울기록페어: 기록이 모이면 서울이 됩니다>
  - 市 신규 브랜드 'Seoul, my soul(마음이 모이면 서울이 됩니다)' 연계 활용
- 행사일시: 2023년 10월 24일(화)~10월 29일(일) (6일간 진행)
- 행사장소: 서울기록원 (컨퍼런스룸, 교육실, 미팅룸, 기록열람실, 안내센터)
- 행사방법: 전 프로그램 오프라인 진행
- 참여대상: 기록활동가, 기록전문가, 유관기관 종사자 및 일반 시민 누구나
- 참여신청: 이벤트 관리 플랫폼 '이벤터스' 및 서울시 공공예약서비스를 통한 프로그램 사전 참가 신청 접수
- 주요내용: <북큐레이션>, <다큐멘터리 아카이브 상영회>, <렉처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 등 총 8개 프로그램 운영
- 특기사항: 서울기록원 내 타 사업의 체험·강연 프로그램 등과 연계한 행사 진행을 통한 <서울기록페어> 개최 효과 극대화 도모

나. 홍보

1) 서울기록페어 홍보 방향

- 행사 대표 홍보물 및 프로그램별 홍보물 제작
- 서울기록원 및 市 보유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 추진 및 초청장 배포



<그림 25> <2023 서울기록페어> 초대장 이미지

2) 서울기록페어 홍보 추진

- 홍보물 제작
  - 포스터·리플렛·현수막·초청장 등 인쇄 홍보물 및 웹배너·카드뉴스 등 온라인 홍보물 총 8종 제작
- 홍보 내용
  - 서울기록원 관할 기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기록관리학 대학(원)·유관기관 대상 초청장 우편 발송(총 181곳) 및 서울기록화 네트워크 포함 민간 단체·개인 대상 이메일 초청장 발송(총 150곳)
  - 행사 홍보 보도자료 <"기록이 모이면 서울이 됩니다"…서울기록원, <2023 서울기록페어> 개최>('23. 10. 13.[금] 석간) 배포
  - 서울기록원 SNS채널(인스타그램)을 통한 프로그램별 카드뉴스 게시 및 市 행정포털·서울기록원 누리집 내 웹배너 표출 등 온라인 홍보 추진

연번	구분	세부사항
1	포스터	메인 포스터(전체 프로그램 포함)
		<북큐레이션> 안내 포스터
		<희곡 낭독회> 안내 포스터
		<생활수선> 안내 포스터
		<렉처 프로그램> 안내 포스터
		<가을밤, 기록으로 다시 밝히다> 안내 포스터
2	웹배너	서울기록원 누리집 게시용 웹배너
		서울시 행정포털 게시용 웹배너
		프로그램 사전신청 플랫폼(이벤터스) 게시용 웹배너
3	현수막	옥외 홍보용 대형 현수막
		<렉처 프로그램> 안내데스크용 현수막
4	배너	전체 행사 프로그램 안내 엑스배너(실외)
		<희곡 낭독회> 안내 엑스배너
		<생활수선> 안내 엑스배너
		<렉처 프로그램> 안내 엑스배너(실내·외각1개,동일디자인)
		<가을밤, 기록으로 다시 밝히다> 안내 엑스배너
		<다큐멘터리 상영회> 안내 배너
		<북큐레이션> 안내 배너
5	POP	<북큐레이션> 안내 고정형 POP
		<북큐레이션> 상세 안내 고정형 POP
6	켈지	<렉처 프로그램> 공간장식용 켈지
7	카드뉴스	전체 행사 홍보 카드뉴스
		<북큐레이션> 홍보 카드뉴스
		<다큐멘터리 상영회> 홍보 카드뉴스
		<희곡 낭독회> 홍보 카드뉴스
		<생활수선> 홍보 카드뉴스
		<렉처 프로그램> 홍보 카드뉴스
		<가을밤, 기록으로 다시 밝히다> 홍보 카드뉴스
8	인쇄물	리플렛(3단 6면)
		초대장(2면)
		<렉처 프로그램> 자료집
		기념품 스티커
		에코백(1도 인쇄)

<표 15> <2023 서울기록페어> 홍보물 제작 목록



<그림 26> <2023 서울기록페어> 홍보물 사진

다. 서울기록페어 전체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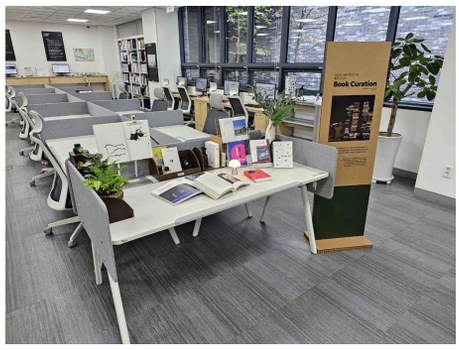
○ 전체 프로그램

연번	프로그램명	일시	장소	내용
1	북큐레이션	10. 5.(목) ~10. 31.(화)	기록열람실 (2층)	'23년 서울기록 수집주제(연극과 무용) 연계 도서 추천 프로그램
2	다큐멘터리 아카이브 상영회	10. 24.(화) ~10. 29.(일)	안내센터 (1층)	『서울기록화 사업』으로 제작된 다큐멘터리 아카이브 연속 상영
3	희곡을 만나는 시간 : 오세혁 작가 북토크×희곡 낭독회	10. 25.(수)	컨퍼런스룸 (5층)	북큐레이션 연계 프로그램
4	생활수선	10. 26.(목)	미팅룸1 (3층)	종이기록 복원 체험 프로그램
5	기록을 바라보는 여섯 개의 시선: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가는가?		교육실 (3층)	전시 연계 강연 프로그램 (도시문헌학자 김시덕 강연)
6	렉처 프로그램	10. 27.(금)	컨퍼런스룸 (5층)	기록전문가 특강 및 서울의 기록 활동 소개 세션
7	가을밤, 기록으로 다시 밝히다	10. 28.(토)	미팅룸1 (3층)	전시 연계 체험 프로그램
8	우리의 나날을 기록해 : 우리 가족 타임캡슐		교육실 (3층)	교과 연계 체험 프로그램

<표 16> 전체 프로그램 일정표

1) <북큐레이션>

- 운영 기간: 2023. 10. 5.(목)~10. 31.(화) (약 한 달간 운영)
- 운영 장소: 서울기록원 기록열람실(2층)
- 운영 목적: 서울기록원 기록열람실의 자체 운영 프로그램 연계 활용을 통한 <2023 서울기록페어> 홍보 및 행사 운영 효과 극대화, 라키비움(Larchiveum)으로서 서울기록원에 대한 대시민 인식 제고
- 운영 내용: 2023년 서울기록 수집주제(연극무용) 연계 도서 추천 프로그램 제공
  - 매월 주제별 추천 도서를 소개하는 서울기록원 기록열람실의 <도서 추천 프로그램>과의 연계 운영 추진(보존서비스과 협조)
  - 연극과 무용을 전문으로 다루는 독립출판사 '지만지드라마', '1도씨', '플로어웍스'의 대표 도서부터 공연예술 분야의 아카이빙북, 에세이 등 추천 도서 20권 선정 및 소개
- 운영 방식: 자유 관람





<그림 27> <북큐레이션> 운영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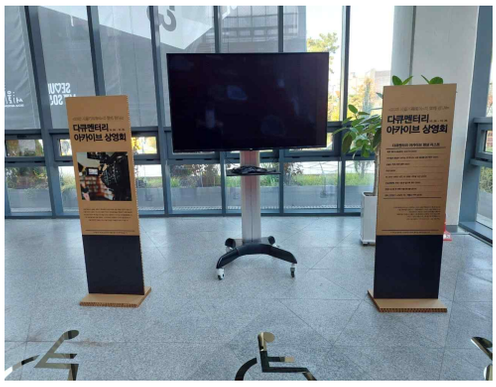
- <북큐레이션> 선정 도서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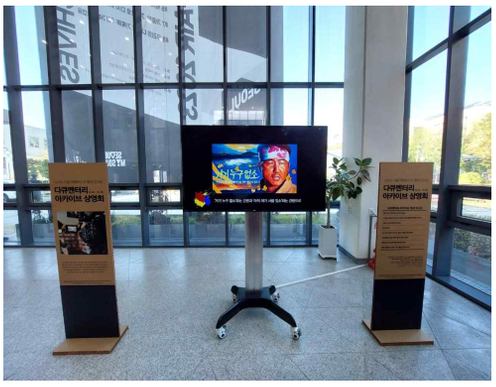
구분	서명	구분	서명
1	홍동지놀이	11	발레 음악 산책
2	소리굿 아구 / 공장의 불빛	12	발레리노 이야기
3	한강은 흐른다	13	바른 발레 생활
4	오늘의 책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14	기록, 성장, 연극
5	깊은舍廊 사랑 디렉토리	15	지금 여기, 변화하는 자유로움
6	극단 신세계는 공동창작으로 연극 '공주들'을 만들었다.	16	남산예술센터 관객의 기록 2009-2020
7	비주류들의 말하기-2000년대 한국연극의 새로운 입장들	17	윤덕경 춤을 기록하다
8	노트, 안무에 관한 비평, 무용에 대한	18	춤의 기록
9	레드 채플린	19	펜으로 쓰는 춤
10	발레 작품의 세계	20	검은 드로잉

<표 17> <북큐레이션> 선정 도서 목록

2) <다큐멘터리 아카이브 상영회>

- 운영 기간: 2023. 10. 24.(화)~10. 29.(일) (6일간 운영)
- 운영 장소: 서울기록원 안내센터(1층)
- 운영 목적: 서울기록화 사업의 '다큐멘터리 아카이브' 제작 과업의 산출물인 다큐멘터리 영상 상영을 통하여 사업의 성과 대외적 공유
- 운영 내용: 2019~2022년 사업을 통해 제작된 다큐멘터리 영상 총 8편 연속 상영
- 운영 방식: 자유 관람





<그림 28> <다큐멘터리 아카이브 상영회> 행사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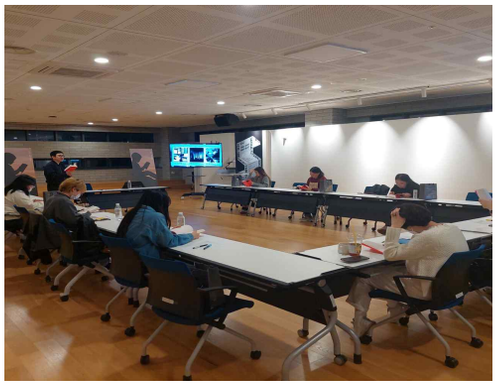
제목	내용	제작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MZ세대가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배경과 그들의 환경운동 이야기	2022
아이들의 환상이 보이는 단 하나의 시장, 동대문 문구완구	국내 최대 문구완구 전문도매시장에서 문구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시장 이야기	2021
오늘도 차곡차곡 금천	금천구에서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2021
한강	1970년대 한강 개발 이전의 기억이 있는 환경운동가 인터뷰	2020
BC 2019 사라진 시간, AC 2020 나아갈 시간	코로나 19 이후 변화된 연극활동, 비대면 연극의 어색함과 불편함에 관한 이야기	2020
오늘공동체_우린 다르게 살기로 했다	공동주택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야기	2020
한양도성 밖 첫 번째 마을 창신동	창신동 돌산마을을 중심으로 마을 사람들의 역사와 삶의 흔적에 관한 이야기	2019
영화 간판쟁이- 사라져 가는 것들의 안부	이제는 사라져버린 영화산업의 중요한 존재였던 영화간판화가 이야기	2019

<표 18> 다큐멘터리 상영 목록

3) <희곡을 만나는 시간: 오세혁 작가 북토크x희곡 낭독회>

- 운영 일시: 2023. 10. 25.(수) 19:00~21:00(2시간)
- 운영 장소: 서울기록원 컨퍼런스룸(5층)
- 운영 목적: <북큐레이션> 추천 도서에 대한 서울시민의 이해 증진 및 기록문화에 대한 흥미 고취를 위한 <북큐레이션> 연계 프로그램 기획·운영
- 참여 인원: 9인
- 모집 방법: 이벤트 관리 플랫폼 '이벤터스'를 통한 프로그램 사전 참가 신청 접수(20세 이상 성인 10인 이내 선착순 모집 시행)
- 운영 내용: <북큐레이션> 추천 도서 가운데 희곡 대본집 『레드 채플린』을 선정하여, 해당 도서의 저자인 오세혁 작가의 북토크 및 수록 희곡 작품을 시민들이 작가와 함께 읽어보는 희곡 낭독회 운영

  - 오세혁 작가의 북토크를 진행하여 작가와 독자 간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무대 예술인 희곡 공연을 기록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희극 대본을 엮어 희곡집으로 펴내게 된 작가의 경험을 전달함으로써 기록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흥미를 고취시키는 데 기여함
  - 『레드 채플린』에 수록된 「아빠들의 소꿉놀이」(2011년 《서울신문》 신춘문예 희곡 분야 당선작), 「사랑가루」, 「크리스마스에 30만 원을 만날 확률」(2011년 《부산일보》 신춘문예 희곡 분야 당선작) 등 총 3편의 희곡을 오세혁 작가와 함께 읽는 희곡 낭독을 통해 참여자들에게 독특하고 특별한 기록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그림 29> <희곡을 만나는 시간: 오세혁 작가 북토크x희곡 낭독회> 행사 사진

4) <생활수선>

- 운영 일시: 2023. 10. 26.(목) 14:00~16:00(2시간)
- 운영 장소: 서울기록원 미팅룸(3층)
- 운영 목적: 기초적인 종이 기록 복원 처리 방법에 대한 체험 기회 제공 및 시민 대상 기록관리 교육을 통한 서울기록원의 보존처리 업무에 대한 이해도 증진
- 참여 인원: 6명
- 모집 방법: 이벤트 관리 플랫폼 '이벤터스'를 통한 프로그램 사전 참가 신청 접수(초등학생(보호자 1인 동반 필수) 이상 12인 이내 선착순 모집 시행)
- 운영 내용: 총 4가지 유형의 종이 기록 복원 처리 방법 실습(보존서비스과 협조)
  - ①기록물 펴기, ②먼지와 오염 제거하기, ③찢어진 부분 붙이기, ④테이프 제거하기



<그림 30> <생활수선> 행사 사진

5) <기록을 바라보는 여섯 개의 시선: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가는가?>

- 운영 일시: 2023. 10. 26.(목) 14:00~16:00(2시간)
- 운영 장소: 서울기록원 교육실(3층)
- 운영 목적: 서울기록원의 전시 연계 강연 프로그램을 <2023 서울기록페어> 기간에 연계 운영하여 행사 프로그램 다양화 도모 및 행사 홍보 효과 확대
- 참여 인원: 32명
- 모집 방법: 서울시 공공예약서비스를 통한 예약(40인 이내 선착순 모집 시행)
- 운영 내용: 서울기록원 전시와 연계하여 도시문헌학자의 관점에서 기록을 조망하는 강연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한 시민들의 기록에 대한 이해 증진(<기록을 바라보는 여섯 개의 시선> 연계 운영(보존서비스과 협조))



<그림 31> <기록을 바라보는 여섯 개의 시선> 행사 사진

6) <렉처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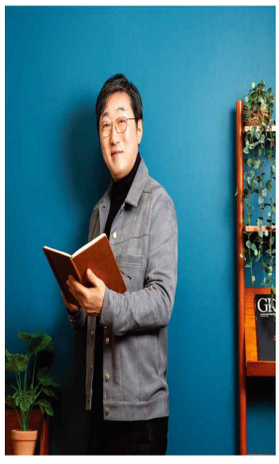
- 운영 일시: 2023. 10. 27.(금) 13:00~18:00(5시간)
- 운영 장소: 서울기록원 컨퍼런스룸(5층)
- 운영 목적: '공연예술과 기록의 만남'을 주제로 이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와 관점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강연 구성을 통해 기록관리 전문가부터 일반 시민까지 즐길 수 있는 <렉처 프로그램> 운영
- 참여 인원: 60명
- 모집 방법: 이벤트 관리 플랫폼 '이벤터스' 및 서울시 공공예약서비스를 통한 프로그램 사전 참가 신청 접수(100인 이내 선착순 모집 시행)
- <렉처 프로그램> 일정표

내용	시간	강연자명	내용
축사	13:00~13:10 (10분)	서울기록원장	축사
기록전문가 특강	13:10~14:00 (50분)	김익한 (명지대학교 명예교수)	삶의 무기가 되는 기록
	14:10~15:00 (50분)	김현옥 (아르코예술기록원 학예연구사)	함께하는 연극 기록, 의미와 가치에 대한 이야기
	15:10~16:00 (50분)	주선영 (국립중앙극장 학예연구사)	공연예술과 아카이브: 국립중앙극장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기록화 네트워크 세션	16:10~16:40 (30분)	홍주아 (극단 생존자프로젝트 공동대표)	면목 3.8동의 삶과 기록
	16:50~17:20 (30분)	서태리 (무용 안무가)	안무가의 감각을 간직하기 위해

<표 19> <렉처 프로그램> 일정표

○ 김익한(명지대학교): 삶의 무기가 되는 기록법

- 베스트셀러인 『거인의 노트』를 배경으로 기록형 인간에 대해 소개하면서 기록의 당위성, 기록을 통한 내적 성장, 기록을 잘하는 방법, 월간 다이어리 작성법 등에 대해 강연




<그림 32> 김익한: 삶의 무기가 되는 기록법 강연 현장

○ 김현옥(아르코예술기록원): 함께하는 연극 기록, 의미와 가치에 대한 이야기

- 연극기록물의 유형과 특징, 연극기록물의 종류, 아르코예술기록원의 연극기록물 수집 방식에 대해 강연




<그림 33> 김현옥: 함께하는 연극 기록, 의미와 가치에 대한 이야기 강연 현장

○ 주선영(국립중앙극장): 공연예술과 아카이브: 극립중앙극장 사례를 중심으로

- 공연에술의 정의, 공연에술 기록의 종류, 공연예술 아카이브, 예술 아카이브 기관의 유형, 국립극장의 공연예술기록 수집, 국립극장 공연예술아카이브 구축 사례에 대해 강연




<그림 34> 주선영: 공연예술과 아카이브 강연 현장

○ 홍주아(극단 생존자프로젝트): 면목3.8동의 삶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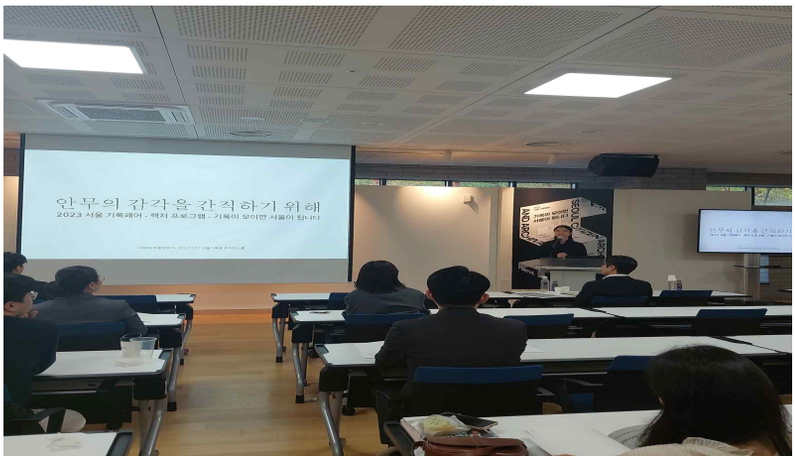
-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을 배경으로 한 극단 생존자프로젝트의 공연 소개와 작품 제작 과정, 연극 <면목동>을 만들기 위해 남긴 기록물의 소개와 기록 활용 사례에 대해 강연





<그림 35> 홍주아: 면목3.8동의 삶과 기록 강연 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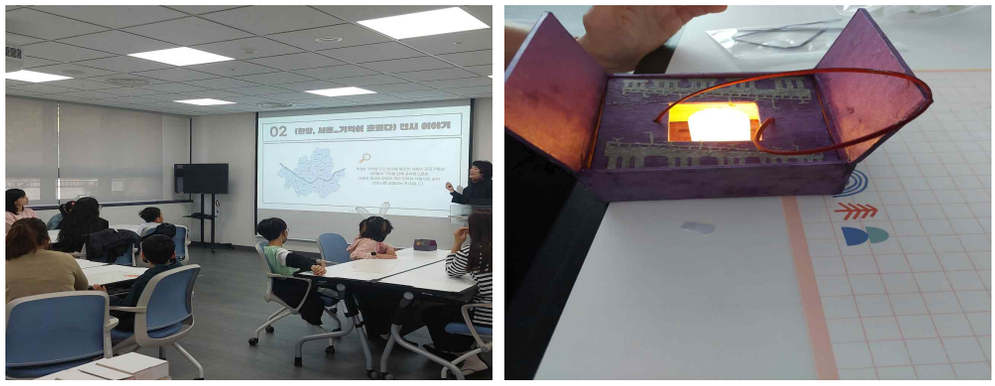
- 서태리(무용 안무가): 안무가의 감각을 간직하기 위해
  - 기록없이 전달되는 안무가의 감각과 한계, 그로 인해 개발한 자신만의 독특한 안무기록 방식인 무보에 대한 소개, 매체별 특징을 고려한 무용의 기록, 기록과 무용작품의 접목 등에 대해 강연

<그림 36> 서태리: 안무가의 감각을 간직하기 위해 강연 현장

7) <가을밤, 기록으로 다시 밝히다>

- 운영 일시: 2023. 10. 28.(토) 10:00~12:00(2시간)
- 운영 장소: 서울기록원 미팅룸(3층), 전시실(2층), 서울기록원 주변
- 운영 목적: '23년 6~7월 운영되어 큰 호응을 얻었던 가족 대상 프로그램 <여름밤, 기록으로 밝히다>(총 7회 운영, 총 136인 참여)의 재개최 추진
- 참여 인원: 13명
- 모집 방법: 이벤트 관리 플랫폼 '이벤터스' 및 서울시 공공예약서비스를 통한 프로그램 사전 참가 신청 접수(초등학교 1~3학년 어린이(학부모 동반) 20인 이내 선착순 모집 시행)
- 운영 내용: 서울기록원 <한강, 서울_기억이 흐르다>展을 기반으로 한 기록에 대한 이해 확산 및 접등 만들기를 통한 기록문화에 대한 흥미 고취(보존서비스과 협조)



<그림 37> <가을밤, 기록으로 다시 밝히다> 행사 사진

8) <우리의 나날을 기록해: 우리 가족 타임캡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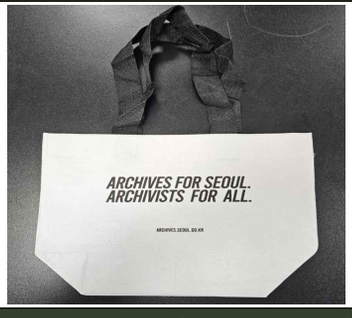
- 운영 일시: 2023. 10. 28.(토) 14:00~16:00(2시간)
- 운영 장소: 서울기록원 교육실(3층), 전시실(2층), 서울기록원 주변
- 운영 목적: 서울기록원의 초등 교과 연계 프로그램을 <2023 서울기록페어> 기간에 연계 운영하여 행사 프로그램 다양화 도모 및 행사 홍보 효과 확대
- 참여 인원: 16명
- 모집 방법: 이벤트 관리 플랫폼 '이벤터스' 및 서울시 공공예약서비스를 통한 프로그램 사전 참가 신청 접수(초등학교 1~3학년 어린이(학부모 동반) 24인 이내 선착순 모집 시행)
- 운영 내용: 타임캡슐 만들기를 통해 기록의 방법과 의미, 작성 등에 대해 이해하는 초등 국어 교과 연계 프로그램(보존서비스과 협조)



<그림 38> <우리의 나날을 기록해> 행사 사진

라. 기념품 제작 및 배포

- 제작 목적: 행사 프로그램 참여자 등에 대한 답례용 기념품 제작 및 배포
- 기념품 종류: 도서 『레드 채플린』(1도씨, 2021), 리유저블 백, 친환경 문구 세트, <렉처 프로그램> 자료집 등 총 4종
- 선정 기준: 실용성 및 친환경성 등을 고려하여 기념품 품목을 선정함
  - 도서 『레드 채플린』(1도씨, 2021): <오세혁 작가 북토크×희곡 낭독회> 기념품으로, 실제 프로그램 운영 시 희곡 낭독을 위한 필수 자료로서 실용성이 높음
  - 리유저블 백: 내구성이 높은 타포린 원단으로 제작한 리유저블 백을 제공하여 일회용 쇼핑백을 대체하고, 서울기록원의 브랜드 메시지를 보여줄 수 있는 문구를 활용한 타이포그래피 디자인을 구현하여 서울기록원의 홍보 효과 창출
  - 친환경 문구 세트: 폐나무 분말로 만든 연필깎이, 생분해에 용이한 종이연필, 재생지와 콩기름 잉크로 제작된 노트 등 친환경 제품으로 구성된 문구 세트 증정
- 기념품 배포
  - 개별 프로그램 특성을 고려한 기념품 배포 및 기념품 중복 제공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별 기념품 배포 시행
  - <오세혁 작가 북토크×희곡 낭독회>: 도서 『레드 채플린』(1도씨, 2021) 제공
  - <생활수선>: 리유저블 백, 친환경 문구 세트 제공
  - <가을밤, 기록으로 다시 밝히다>: 리유저블 백, 친환경 문구 세트 제공
  - <렉처 프로그램>: 리유저블 백, 친환경 문구 세트, 강연 자료집 제공

리유저블 백	친환경 문구세트
	
『레드 채플린』(1도씨, 2021)	**<렉처 프로그램> 자료집**
	

<표 20> <2023 서울기록페어> 기념품

마. <2023 서울기록페어> 성과

1) 서울기록페어 결과

- 참여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냈으며 서울기록페어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연례 행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2023 서울기록페어> 프로그램별 참여자(총 136명)
  - 희곡을 만나는 시간: 오세혁 극작가 북토크x희곡 낭독회 : 9명
  - 생활수선: 6명
  - 기록을 바라보는 여섯 개의 시선: 32명
  - 렉처 프로그램: 60명
  - 가을밤, 기록으로 다시 밝히다: 13명
  - 우리의 나날을 기록해: 우리 가족 타임캡슐: 16명
- <2023 서울기록페어> 참여자 총 136명 가운데 89명(응답률 65%)이 설문조사에 응답
- 설문조사 결과
  - 행사 참여자 가운데 여성, 기록관리 관련 연구자·종사자 등과 20~30대의 참여율이 높음
  - 기록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과 프로그램 주제에 관한 관심이 행사 참여의 목적
  - 서울과 인천/경기에 거주하는 참여자의 비율이 높으나, 강원, 경남, 충남, 충북 등 전국에서 참여하는 모습 확인
  - '주변 사람의 권유'와 '신문 등 언론 및 인스타그램 등 SNS 매체'를 통해 <2023 서울기록페어>의 개최 소식을 접하게 된 비율이 가장 높아 향후 행사 홍보 시 '신문 등 언론 및 인스타그램 등 SNS 매체'의 적극적인 활용 필요
  - <2023 서울기록페어>의 전체 기간 중 '렉처 프로그램'과 '기록을 바라보는 여섯 개의 시선: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가는가' 프로그램의 참석률 및 만족도가 가장 높음
  - '북큐레이션'과 '다큐멘터리 아카이브 상영회'는 각각의 참여자에게 별도의 설문지 작성을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다른 프로그램 참여자의 답변을 통해 '북큐레이션'과 '다큐멘터리 아카이브 상영회' 프로그램 동시 참여 확인
  - <2023 서울기록페어>에 대해 참여자 대부분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향후 '서울의 기록 활동을 소개하는 민간 기록활동가의 세션', '타 아카이브(유관기관 포함)에서 종사하는 실무자의 강연'등의 강연 프로그램과 '기록물 보존·복원 체험 프로그램', '기록물 수집 체험 프로그램'과 '전시(상설전시·특별전시) 연계 프로그램' 등 교육·체험 프로그램의 지속적 개최 및 운영 확대 희망
  - 향후 <서울기록페어> 운영 및 프로그램 기획 시 참여자의 만족도와 흥미가 높은 프로그램과 유사한 주제를 가진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 필요
  - <2023 서울기록페어>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와 종합의견을 통

해 참여자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

- 설문조사의 결과와 종합의견을 통해 향후 서울기록페어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대한 서울기록원의 추진 방향 설계 필요
- 향후 서울기록페어 프로그램 기획 및 구성에 있어서 시민 및 기록분야(유관분야)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사전 설문조사를 추가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시민의 호응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프로세스 도입 필요
-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참여자들의 요구사항과 관심사를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등 행사 프로그램을 보다 효과적으로 설계할 수 있으며, 이와 동시에 행사의 필요성과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콘텐츠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사전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실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기대효과도 존재
- 서울기록원은 향후 서울기록페어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참여자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한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과 더불어 '서울의 기록 활동을 소개하는 민간 기록활동가의 세션', '타 아카이브(유관기관 포함)에서 종사하는 실무자의 강연' 등 강연 프로그램과 '기록물 보존·복원 체험 프로그램', '전시(상설전시·특별전시) 연계 프로그램' 등 교육·체험 프로그램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참여자의 요구사항 및 개선사항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행사 추진 기대

4 시민기록 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

가. 온라인 콘텐츠 제작

1) 기획 의도

- 2020년부터 추진 되어온 서울기록원의 <서울기록화 사업>을 통해 발굴된 서울의 기록활동가를 소개하는 <서울기록원이 만난 서울을 기록하는 사람들> 온라인 콘텐츠 제작
- 자생적으로 활동하는 서울 내 기록활동가들에게 활동 공유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기록 활동을 지원하는 공공아카이브로서 서울기록원의 역할 수행
- 서울의 기록활동가들과의 온라인 콘텐츠 기획 협업을 통하여 서울기록원과 기록활동가 간 '서울기록화 네트워크' 강화
- 시민들의 기록 활동 참여 의지를 고취하여 서울 내 기록문화 확산

2) 주요 내용 및 방향

- 대면 및 이메일 등 인터뷰를 통해 원고 작성 후 콘텐츠화 진행
- 주요 인터뷰 내용
  - 단체에 대한 소개
  - 서울을 기록하게 된 계기
  - 활동 지역에 대한 소개
  - 서울을 기록하는 과정
  -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 기록의 의미와 기록하고 싶은 서울의 모습




<그림 39> 온라인 콘텐츠 인터뷰 사진

3) 콘텐츠 대상 및 선정 사유

- 콘텐츠 대상: 호박이넝쿨책-야책(김정훈 대표)
  - 성북구 정릉동 아리랑 시장에 위치한 커뮤니티 서점으로, 매주 금요일 밤마다 공연과 독서 모임 등(야책파티) 개최
  - 매주 화요일에는 고전, 목요일에는 희곡을 읽는 모임이 있으며 책방인터넷, 라디오방송을 제작하여 유튜브 채널(채널 사아리)에 업로드 중
- 선정 사유
  - '호박이넝쿨책-야책은' 「2020년 서울기록화 사업」을 통해 최초 발굴된 서울기록화 네트워크임
  - 2020년 서울기록 수집주제 중 하나였던 '마을 만들기 지원'(S-NAP 6.1.4.)의 영역에서 '동네 사람들이 활동하는 서점'이라는 측면에서 조명 받아 네트워크로 선정·발굴됨
  - <서울기록원이 만난 서울을 기록하는 사람들>은 서울기록원이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기록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더욱 풍부하게 기록하고자 하기 위한 목적에서 기획된 만큼, 현재에도 서울에서 독특한 기록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호박이넝쿨책-야책'을 소개하는 온라인 콘텐츠 제작을 통하여 서울 내 대표적인 기록활동 사례 소개
  - 선행 사업을 통해 발굴된 기록활동가를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를 제작함으로써 이전에 발굴된 기록활동가들과의 네트워크를 유지·강화함
  - 아울러 '호박이넝쿨책-야책'은 2023년 현재 희곡 낭독 모임인 '낭독극단 호박이넝쿨책'을 운영하며 연 2회 공연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2023년 서울기록 수집주제 중 하나인 '연극'과도 연계되어 있어 2023년 <서울기록원이 만난 서울을 기록하는 사람들>의 적합한 콘텐츠 대상으로 선정됨

4) 성과

- <서울기록원이 만난 서울을 기록하는 사람들> 온라인 콘텐츠화
  - <서울기록원이 만난 서울을 기록하는 사람들> 콘텐츠를 서울기록원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는 온라인 콘텐츠로 변경 기획함으로써 시민들이 쉽게 접근 가능한 형태로 서울 내 기록활동가들의 다양한 활동과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함
  - 선행 사업을 통해 기획되었던 <서울기록원이 만난 서울을 기록하는 사람들> 콘텐츠가 오프라인 전시 형태로 제공됨에 따라 전시가 종료된 이후에는 다시 보기가 불가능했던 단점이 존재했으나,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여 한정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으로의 콘텐츠 전환을 통해 기록활동가들의 다양한 활동을 일회적으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

- 서울기록화 네트워크 강화 노력
  - 2020년 서울기록원이 발굴했던 '호박이넝쿨책-야책'이라는 독특하고 활발한 기록활동 단체를 2023년 다시 한번 주목하여 시민기록 콘텐츠의 대상으로 선정함으로써, 서울기록원이 발굴한 기록활동가 혹은 단체를 지속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하려는 서울기록원의 명확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공표함
  - 또한, 단순히 기존에 발굴된 기록활동 네트워크를 다시 주목하는 것을 넘어서, 서울기록원이 시민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서울의 다양한 측면을 보다 풍부하게 기록하고 보존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음을 강조하고자 함



<그림 40> 온라인 콘텐츠 결과

나. 아카이빙북 제작

1) 추진 목적

- 서울에서 펼쳐지고 있는 다양한 시민들의 일상 기록활동과 기록 이야기를 발굴하고 공유하기 위하여 아카이빙북 제작 추진
- '기록도시 서울' 시민의 일상과 경험, 이야기를 시민과 공유함으로써 시민 참여와 협력의 '기록 거버넌스'를 모색하는 서울기록원의 지향 실현 노력
- 다양한 기록 활동을 통해 서울의 오늘을 해석하고 기록함으로써 기록의 외연을 확장하고 향후 시민기록 활동 교류 및 기록 생태계 구축 과정에서 소통 도구로 활용
- 아카이빙북을 통해 시민들의 다양하고 자발적인 기록활동을 지지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시민들의 일상적인 기록 관련 활동을 아카이빙북에 담아냄으로써 서울의 다양한 측면을 보다 개인적이고 현실적인 시민의 관점에서 기록할 수 있도록 함

2) 기획 의도

- 2023년 서울기록 수집주제 '연극과 무용'을 기반으로, 서울이 배경과 소재가 되거나, 서울의 장소성과 역사성을 배경으로 집필·창작·공연된 '연극과 무용' 작품을 만든 창작자와 서울의 '연극과 무용'에 있어 중요한 거점 공간 및 거점 활동가들을 만나 인터뷰한 내용을 아카이빙북으로 담아냄
- '서울'이라는 거대도시가 '연극과 무용'이라는 공연예술과 어떤 관계망 속에 존재하는지 파악하고, '연극과 무용'에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서울의 기관과 단체들을 면담하고 그 내용을 아카이빙함
- '연극과 무용' 내부에 속하기도 하고 반대로 '연극과 무용'을 귀속시키기도 하는 서울의 다양한 면모를 수집하여 기록함
- 아카이빙북의 인터뷰 대상은 서울기록 수집리드와 중복되지 않는 개인 혹은 단체로 신규 발굴·선정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시각과 이야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함
- 서울기록 수집 과업을 통해 미처 다룰 수 없었던 새로운 관점과 주제를 아카이빙북을 통해 보완하여 탐색할 수 있도록 서울 내 공연예술의 다양한 측면을 발굴하고 기록함으로써 서울기록 아카이브를 확장함
- 아울러 「2023년 서울기록화 사업」의 서울기록화 네트워크 프로그램 <한 편의 희곡이 되는 나의 서울 이야기>와 서울기록원의 대표 기록문화행사 <2023 서울기록페어>의 현장 스케치를 함께 수록함

3) 콘텐츠 목차

구분	내용
서문	서울의 연극, 무용의 서울
인터뷰	이 모든 일들이, 그때 그리고 여기서 - 우연, 전 남산예술극장 극장장
	변방 혹은 또다른 중심 - 삼일로창고극장 공동운영단
	연극의 1번지를 지켜내는 연극실험실 - 혜화동1번지 8기 동인
	서울, 연극, 연습 - 이경성, 극단 크리에이티브 바키(VaQi) 연출가
	존재 자체가 의미 - 백교희, 서울프린지페스티벌 사무국장
	서울 무용, 아직 발견되지 않은 곳 - 장수혜, 독립 프로듀서
	나의 춤속에 깃든 서울 - 송주원, 안무가
	정책적 관점에서 본 서울 연극의 경향들 - 최윤우, 연극정책평론가
2023년 서울기록화 사업	네트워크 프로그램 - 한 편의 희곡이 되는 나의 서울 이야기
	2023 서울기록페어 - 기록이 모이면 서울이 됩니다

<표 21> 아카이빙북 목차

4) 콘텐츠 개요

- 우연(전 남산예술센터 극장장), <이 모든 일들이, 그때 그리고 여기서>
  - 우리나라 예술경영 1세대 기획자이자 국제교류 전문가인 우연은 서울에서 처음 국제예술축제를 주도한 인물 중 한 사람으로 걸어온 발자취가 서울의 무용, 연극, 축제, 극장, 예술행정의 역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
- 삼일로창고극장 공동운영단, <변방 혹은 또다른 중심>
  - 국립극장·남산예술극장·삼일로창고극장 등 남산을 타고 이어지는 한국 서울 연극의 중심이 되어온 대표적인 극장 중 하나이자 1970년대 한국 실험극 운동의 전통을 계승한 창작 극장으로서 서울의 청년 문화와 실험 예술의 시작을 함께했다는 점에서 주목되며, 현재는 명동이라는 지리적 위치보다는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서울의 예술 커뮤니티와의 상호작용을 중시하고 있음
- 혜화동1번지 8기 동인, <연극의 1번지를 지켜내는 연극실험실>
  - 대학로의 상업화된 연극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취하며 실험적이고 독립적인 연극 활동을 펼치고 있는 '연극실험실 혜화동1번지 소극장'은 동인제 시스템을 통해 극장을 공동 운영하며 서울의 대학로와 혜화동이라는 지역적 맥락에서 동시대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강화하며 다양성을 존중하는 창작 활동을 이어가고 있음
- <서울, 연극, 연습>, 이경성(극단 크리에이티브 바키(VaQi) 연출가)
  - 서울을 작업의 중심으로 삼아 오랜 시간 동안 연극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이경

성 연출가는 서울의 특정 지역이나 상황에서 파생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여 동시대 서울의 도시 공간과 정치적·사회적 형태에 작품을 제작하고 있음

- ㅇ <존재 자체가 의미>, 백교희(서울프린지페스티벌 사무국장)
  - 1998년 시작된 이래로 현재까지 홍대, 마포, 상암 등 서울 내 다양한 지역을 기반으로 서울의 젊은 공연예술가들을 위한 축제로 기능하고 있는 서울프린지페스티벌의 특성과 정체성, 발전과 변화를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함
- ㅇ <서울 무용, 아직 발견되지 않은 곳>, 장수혜(독립 프로듀서)
  - 무용, 기획, 예술 교육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독립 프로듀서이자 국내 무용의 해외 교류, 해외 무용의 국내 진출에 관한 전문가의 관점에서 서울의 예술 교육과 연구에 대해서 발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평가하고, 또 서울이 예술가들에게 글로벌한 마인드를 갖출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분석함
- ㅇ <나의 춤 속에 깃든 서울>, 송주원(안무가)
  - 안무가이자 댄스필름 감독인 송주원이 다양한 지역과 예술가를 결합하여 작업을 진행한 보광동과 대림동 프로젝트 등을 통해 서울의 다양한 공간을 만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경험과 영감, 그리고 개인적인 이야기가 작품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살펴봄
- ㅇ <정책적 관점에서 본 서울 연극의 경향들>, 최윤우(연극정책평론가)
  - 대학로가 한국 연극의 중심지로 자리 잡은 배경과 역사를 설명하며 대학로의 역할이 1980년대 후반 이후로 강화되었다고 언급함과 동시에, 서울은 활발한 연극 활동과 예술적 탐구가 이루어지는 열린 도시로서 관객 개발보다는 공연 콘텐츠 자체에 집중해야 한다는 견해를 전달하며 동시대적인 이슈들이 모이는 서울에서 연극의 가능성은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전망함

5) 성과

- ㅇ 서울기록 수집과 연계한 아카이빙북 제작
  - 「2023년 서울기록화 사업」의 수집 과업을 통해 다루기 어려웠던 서울 내 공연예술계의 발전과 변화 양상을 아카이빙북을 통해 보완하여 기록함
  - 서울의 주요 극장, 예술 기관, 연극인, 프로듀서 등 아카이빙북을 통해 소개된 인터뷰이는 모두 서울기록 수집리드와 중복되지 않는 개인 혹은 단체로, 보다 새로운 관점과 주제를 아카이빙북을 통해 탐색 가능하도록 함
  - 서울의 연극과 무용을 주도하는 다양한 예술가 및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종합한 아카이빙북은 서울 내 독립적이고 다양한 예술 활동의 기록을 효과적으로 통합함
  - 「2023년 서울기록화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된 아카이빙북은 서울의 연극과 무용을 포괄적으로 기록함으로써 서울기록원이 지향하는 서울의 총체적인 기록화의 목표를 달성했으며, 아카이빙북은 서울 내 공연예술의 지역적, 역사적 맥락을 담아냄으로써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 및 교류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 연극과 무용으로 대표되는 공연예술을 기록하는 아카이빙북 발간

- 「2023년 서울기록화 사업」을 수행하며 서울 내 연극과 무용에 관한 다양한 기록 활동이 존재하며 현재 공연예술계 내에서도 기록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는 상황을 확인함
- 서울기록원은 이러한 필요에 민감하게 대응하여, 연극과 무용의 기록화가 지닌 중요성을 강조하고 공유할 수 있는 중요한 매체로써 아카이빙북을 제작함
- 아카이빙북을 통해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된 예술가, 극장, 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바탕으로 향후 협력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감으로써 서울을 기반으로 한 예술가와 서울기록원의 다양한 프로젝트의 협업 기회를 기대할 수 있음



<그림 41> 아카이빙북 표지 및 내용

Ⅲ. 결론

1. 『2023년 서울기록화 사업』 성과

2. 향후 『서울기록화 사업』 추진 방향

1 『2023년 서울기록화 사업』 성과

1) 수집기록물 SDA 시스템 시범 등록 최초 추진

- 2018~2020년 동안 진행된 서울기록화 사업을 통해 다양한 공공·민간·협치 영역의 기록물이 수집되었고, 2021년 사업을 통해 수집된 기록물을 통일된 방식으로 정리
- SDA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는 상태로 기존 수집기록물 목록을 정리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SDA 시스템에 수집기록물의 기술 요소를 등록하기 어려운 문제점 발견
  - SDA 시스템은 시정기록물 중심의 공공기록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수집기록물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요소를 등록할 수 없음
  - 기존 SDA 시스템을 수집기록물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수정하거나 수집기록물을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수집기록물 관리 프로그램 필요
- 위의 문제점으로 인해 2021년 사업에서는 목록화되지 않은 수집기록물을 목록화하고 작성된 목록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기존 수집기록물을 정리하고 이후 2021년~2022년 사업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정리
- 위의 상황에서 수집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안정적인 보존, 향후 대시민 서비스를 위해 2022년 사업의 수집기록물을 대상으로 SDA 시스템 시범 등록을 진행함
  - 기존 수집기록물 정리 방식은 '건 단위'로 작성되어 '철-건'구조로 등록해야 하는 SDA 업로드 템플릿 사용을 위해 '철 단위' 목록 정비
  - '서울기록원 디지털화 지침'을 적용하여 보존용 포맷과 열람용(서비스용) 포맷으로 변환 후 서울시 데이터센터 이관

2) 시민의 예술 기록으로 서울의 역사를 담는 네트워크 프로그램 기획

- 수집주제 중 하나인 '연극'과 연계하여 서울기록화 네트워크 프로그램으로 기획·운영된 <한 편의 희곡이 되는 나의 서울 이야기>는 서울 시민이 서울을 배경으로 자신의 경험이나 추억이 담긴 단막 희곡 작품 집필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서울기록'을 직접 생산하는 주체가 되어보는 독특하고 흥미로운 경험을 제공함
- 본 프로그램은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예술작품 형태의 서울기록 생산을 유도하여 그 결과를 수집한 서울기록원 내 최초의 사례임

-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완성한 단막 희곡 작품은 예술적인 가치를 지님과 동시에 서울을 배경으로 한 독특한 개인적인 서사를 담고 있는 기록적 가치를 지님
- 또한,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단막 희곡 작품들에는 모두 서울의 역동적인 특성과 다양성이 반영되어 있어, 향후 서울의 다면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기록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됨
- 결과적으로 본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서울 시민이 예술 창작의 일종으로서 기록 활동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또 서울 시민의 개인사를 기록화하여 향후 서울의 예술과 역사의 중요한 유산을 형성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본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예술작품 형태의 서울기록 생산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3) 기간 확대 및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한 <2023 서울기록페어>의 운영

- 올해 사업으로 4회차를 맞이한 <서울기록페어>는 2023년 10월 24일부터 29일까지 총 6일간 개최됨
- <제1회 서울기록페어>('20. 12. 4. 총 1일간 운영), <2021 서울기록페어>('21. 11. 12.~11. 13. 총 2일간 운영), <2022 서울기록페어>('22. 11. 10.~11. 12. 총 3일간 운영)와 비교해볼 때 <2023 서울기록페어>는 최소 2배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확대 운영됨
- 이번 6일로 확대된 행사 기간은 행사 참여자들에게 보다 풍부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및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음
- 아울러 <2023 서울기록페어>에서는 처음으로 서울기록원 기록열람실과의 협업을 통해 서울기록페어에서의 신규 프로그램으로 <북큐레이션>과 이를 기반으로 한 <희곡을 만나는 시간: 오세혁 작가 북토크×희곡 낭독회> 등 프로그램 총 2종을 새롭게 선보임
- 서울기록원의 기록열람실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최초로 기획·운영함으로써 라키비움(Larchiveum)으로서 서울기록원에 대한 대시민 인식을 높이고, 라키비움이 지향하는 대중적이고 열린 기록 문화를 조성하는 데 서울기록원이 담당하고 있는 다양한 역할과 중요성을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함
- 아울러 이번 행사에서는 보존서비스과와의 긴밀한 협업을 시도하여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이고자 해당 부서의 업무인 종이 복원, 기록 열람 등 다양한 과업을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이처럼 서울기록원 내 타 사업의 체험·강연 프로그램과 연계한 이번 행사는 단순히 「2023년 서울기록화 사업」의 일부로서가 아니라, 서울기록원이 대표하는 기록문화행사로서 <서울기록페어>의 역할을 강조하고자 기획된 것으로, 서울기록원이 수행하는 다양한 업무와 서비스의 폭과 깊이를 보다 명확하게 시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 또한, '23년 6~7월에 운영되어 큰 호응을 얻었던 가족 대상 프로그램 <여름밤, 기록으로 밝히다>의 성공적인 개최를 바탕으로 <가을밤, 기록으로 다시 밝히다>을 행사 기간 동안 특별히 선보임으로써 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 더욱 특별하고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함과 동시에, 서울기록원의 <서울기록페어>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자 함

4) 접근성 향상과 네트워크 강화에 초점을 맞춘 시민기록 콘텐츠 개발

- <서울기록원이 만난 서울을 기록하는 사람들> 콘텐츠를 서울기록원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는 온라인 콘텐츠로 변경 기획함으로써 시민들이 쉽게 접근 가능한 형태로 서울 내 기록활동가들의 다양한 활동과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함
- 선행 사업을 통해 기획되었던 <서울기록원이 만난 서울을 기록하는 사람들> 콘텐츠가 오프라인 전시 형태로 제공됨에 따라 전시가 종료된 이후에는 다시 보기가 불가능했던 단점이 존재했음
- 올해 사업에서는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여 한정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으로의 콘텐츠 전환을 통해 기록활동가들의 다양한 활동을 일회적으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
- 특히 <2023년 서울기록화 사업>에서는 2020년 서울기록원이 발굴했던 '호박이넝쿨책-야책'이라는 독특하고 활발한 기록활동 단체를 2023년 올해 다시 한번 주목하여 시민기록 콘텐츠의 대상으로 선정함
- 이를 통해 서울기록원이 발굴한 기록활동가 혹은 단체를 지속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하려는 서울기록원의 명확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공표함
- 또한, 단순히 기존에 발굴된 기록활동 네트워크를 다시 주목하는 것을 넘어서, 서울기록원이 시민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서울의 다양한 측면을 보다 풍부하게 기록하고 보존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음을 강조하고자 했음

2 향후 서울기록화 추진 방향

1) 서울기록 수집 관련 제안 사항

○ 서울기록원 인지도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 전략 개발 필요

- 신규 서울기록화 네트워크 발굴 및 수집리드 개발을 위한 면담조사 실행 결과 서울기록원의 인지도를 제고해야 할 필요성을 파악함
- 더 많은 기록활동가가 서울기록원의 존재를 인식하고 협력 의사를 가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측면에서 홍보 및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요구됨
- 특히 '서울'의 장소성과 역사성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기록활동가의 경우 서울기록원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시정 기록물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 서울 내 기록활동가들이 서울기록원의 소장 자료를 활용하여 더욱 풍부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함으로써 향후 서울기록원의 소장 기록물의 가치를 전파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서울기록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중장기적인 서울기록 수집 계획 수립

- S-NAP은 171개에 달하는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어 현재와 동일한 방식으로 서울기록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S-NAP의 전 영역을 기록화하는 데 최소 75년에서 최대 15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거대한 규모의 수집 서사인 S-NAP을 기반으로 기록화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수집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요구됨
- 다만 변화하는 사회 환경과 주요 이슈, 사회적 관심사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한 수정 및 개선이 가능한 형태로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역동적인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집 전략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급변하는 사회적 흐름에 따라 새로운 주제를 신속하게 선정하여 기록 수집을 추진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기존 선정된 서울기록 수집주제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시민 참여형 서울기록 수집 구조 구축

- 온라인 플랫폼이나 이벤트, 오프라인 토론 및 워크숍 등을 통해 서울 시민들로부터 수집주제를 제안받고, 이를 기반으로 수집주제를 최종 결정하는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서울 시민들의 다양한 관심과 경험을 반영한 주제를 선정할 수 있음
- 이러한 참여형 수집주제 결정을 통해 서울 시민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또한, 흥미로운 캠페인을 기획함으로써 서울기록화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서울 시민들이 직접 제안한 수집주제가 선정될 때 서울기록화 사업에 대한 참여감이 증가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서울기록화 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활발하게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또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선정된 '시민 특화형 주제'는 동시대 서울의 현장과 사회적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함으로써 실제 수집을 통해 역사적 기록화의 현상성을 강조할 수 있음
- 수집주제 선정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서울기록 수집에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현재 서울기록화 사업단 향후 기록물 수집 주체를 다양화할 수 있음
- 현재 서울기록화 사업에서는 서울기록화 사업단 단독으로 기록 수집 과업을 수행하고 있어, 제한된 전문성과 업무 범위, 한정된 사업단 인력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수집 범위와 깊이가 한정될 수 있음
- 다양한 주체로부터 기록물 수집이 이루어질 때 수집 활동의 범위와 깊이가 넓어져 서울의 다양한 측면을 충분히 고려한 포괄적인 서울기록 수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서울기록화를 위해서는 시민들과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됨
- 서울 시민의 참여를 통해 서울기록 수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쉬운 접근성과 사용 편의성을 고려한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하여 누구라도 쉽게 텍스트,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형식의 기록을 서울기록원과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함
- 아울러, 기록물 수집의 프로세스와 방법, 저작권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교육 자료를 제공하여 시민들이 자신이 보유·수집한 서울기록을 효과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서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서울기록 수집에 기여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참여자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제공하고, 수집된 시민 기록물을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 데이터로 활발하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록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서울기록화 네트워크 운영 관련 제안 사항

- 서울기록화 네트워크의 협조와 참여에 따른 명확한 인센티브 마련 필요
  - 서울기록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기존·신규 서울기록화 네트워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임
  - 서울기록원으로부터 보유 기록물 사본 수집을 위한 요청을 받은 기록활동가들은 기록물의 정리 및 아카이빙에 상당한 개인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본 사업에 기

여하게 되나, 이러한 참여와 기여에 대한 명확한 혜택이나 보상 체계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 서울기록원과의 네트워크 구축, 기록 수집, 네트워크 프로그램 및 <서울기록페어> 참여 등 서울기록화 사업에의 협조에 대한 보답으로 자체 아카이빙을 위한 금전적인 지원, 자유로운 기록물 보관이 가능한 수장고 공간 대여, 기록물 정리를 포함한 아카이빙 실무 지원 등이 공통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나 현재 서울기록원은 예산 및 운영상의 제약으로 이러한 요구에 직접 부응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이러한 상황에서는 수집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중요 기록물에 대한 접근이 크게 제한되어 서울기록 수집의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동시에 기록활동가들의 참여 동기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함
- 따라서 대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서울 내 기록활동가들이 서울기록화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 및 인센티브를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서울기록원 자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로써 기록활동가의 참여 동기를 강화하여 서울기록화 사업의 지속적인 기록물 수집 및 아카이빙 프로세스가 원활히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서울기록화 네트워크 구축으로 이어지는 네트워크 프로그램 기획·운영

- 현재 서울기록화 네트워크 프로그램은 일회성의 성격으로 운영되어 서울기록원과 참여자들 간의 지속적인 소통 및 라포 형성이 이루어지기 힘들었으며, 이에 따라 참여자들에게 서울기록화 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참여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음
- 따라서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참여자들이 서울기록화에 계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이벤트를 도입하여 서울기록화 네트워크로서 서울기록화의 프로세스에 지속적이고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됨
- 서울기록화 네트워크 프로그램 간 연계를 강화하고, 하나의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도 이를 기반으로 하는 파생 프로그램을 추가로 도입함으로써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연속적인 주제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음
- 또한,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의견과 피드백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개선 프로세스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참여자들이 서울기록원의 프로그램에 더 많은 만족감을 느끼고 향후에도 서울기록원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아울러 향후 팀 활동이나 공동 작업을 기반으로 한 서울기록화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서로의 서울에 대한 관점과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참여자 간 상호작용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서울기록페어> 개최 관련 제안 사항

○ <서울기록페어>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서울기록원 내부 협력 체계 개선

- <서울기록페어>는 서울기록원을 대표하는 기록문화행사로 정의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서울기록화 사업 내 일부 과업으로 진행되어옴에 따라, 서울기록원의 전 부서와 인원으로부터 실질적인 협력을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 한계가 존재함
- 따라서 본 행사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서울 내 기록문화 확산' 및 '서울 내 기록생태계 구축'이라는 본질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관의 모든 전문성과 역량을 총동원한 지원 체계가 반드시 구축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서울기록페어> 개최라는 과업을 단순히 서울기록화 사업 내 부분적인 업무로 한정하여 바라보는 기관 내 인식을 개선하고, 서울기록원 내 3개의 부서의 전체 인력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협력적인 분위기 조성이 필수적임
- 서울기록원 전체를 대표하는 문화행사로서의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서울기록원 내 각 부서의 긴밀한 내부 협력을 위한 부서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요구되는 각 부서의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함

4) 시민기록 콘텐츠 제작 관련 제안 사항

- <서울기록원이 만난 서울을 기록하는 사람들> 관련 제안 사항
  - 올해 사업을 통해 그동안 오프라인 콘텐츠로 제공되었던 <서울기록원이 만난 서울을 기록하는 사람들>을 최초로 온라인 콘텐츠로 전환함으로써 향후 온라인 환경에서 보다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함
  - <2023년 서울기록화 사업>을 통해 제작된 <서울기록원이 만난 서울을 기록하는 사람들>은 텍스트와 이미지를 기반으로 구성되었으나, 추후에는 이미지, 오디오, 영상 등을 활용하여 콘텐츠의 퀄리티를 높임으로써 기록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보다 생동감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함
  - <서울기록원이 만난 서울을 기록하는 사람들>의 다양성과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새로운 기록활동가들의 이야기를 시민들에게 주기적으로 소개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현재 연 1회의 콘텐츠 업데이트 주기를 단계적으로 단축하여 콘텐츠 제작을 진행함으로써 서울 내 다양한 기록활동의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함
- 아카이빙북 관련 제안 사항
  - 현재 아카이빙북은 서울기록원 누리집을 통해 PDF 형식으로 공개되고 있으나, 향후에는 아카이빙북을 더욱 널리 공유하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확장을 추진함으로써 더 많은 이들이 콘텐츠에 쉽게 접근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함
  - 아울러 아카이빙북의 제작 목적과 의의를 강조하기 위하여 이와 연계한 이벤트, 강연 등을 개최함으로써 시민들의 더 많은 참여와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023년 서울기록화 사업 결과 보고서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편집인 고경희 서울기록원장	
발행처 서울특별시	
발행일 2023.11.	
archives.seoul.go.kr	제작부서 서울기록원 기록정책과 제작총괄 윤정훈 기록정책과장 제작담당 정찬홍 학예연구사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62길 7 전화 02-350-5600
	편집 및 디자인 투에이 주식회사 인쇄 BOOKTORY
	© 2023. 서울기록원 본 제작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서울특별시에 있습니다.
판매가격 비매품	
발간등록번호 51-6113815-000023-10	
ISBN 979-11-7177-007-6 (93020)	

비매품/무료
93020
9 791171 770076
ISBN 979-11-7177-007-6